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FDIC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55호

Monday, October 21, 2024 A

해리스, “예수님” 외친 청중들에게 “잘못 찾아왔네” 조롱 논란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유세 중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외친 청중들에게 “(유세장을) 잘못 찾아왔다”고 조롱해 논란이다. 지난 4여년간 모든 미국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던 전통의 ‘알스미스 가톨릭 자선 만찬’에도 의도적으로 불참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근간인 기독교 및 가톨릭을 무시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위스콘신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호하러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할 의도로 미국 대법관 3명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청중이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외치자 “여러분은 집회에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길 아래쪽에 있는 더 작은 (트럼프) 유세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 비난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스콘신대학교의 기독교

낙태권 발언 중 일부 청중들 야유에 ‘까칠반응’
종교계 행사 패싱 논란에 “중도 표심도 돌아서나”



교 학생들은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외친 후 일부 청중들로부터 모멸 당했다”고 폭스 뉴스에 전했다. 일부 정치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가 유세 중 일부 청중들의 야유에, 특히 종교적 발언에 비꼬는 반응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제79회 알프레드 스미스 기

념 자선 만찬에 불참하는 대신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진행하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만찬은 1946년부터 시작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해온 역사적인 행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1984년 월터 먼데일 이후 주요 정당 대선 주자 중 이 만찬에 불참한 첫 사례가 되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행사 불참에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합주의 20% 이상 주민들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회복에 갈 길 바쁜 해리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지원 속에 경합주를 돌며 유세에 ‘올인’했다. 해리스는 19일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를 향해 “잔인하다”고 직격했다.

해리스는 이날 유세장 객석에 고(故) 앰버 니콜 서먼의 어머니가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트럼프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28세였던 서먼은 2022년 조지아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자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낙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래트포브 유세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이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해리스는 바이든만큼도 똑똑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만약 그가 바이든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세에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일대 철강노조원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리스에 대한 흑인 표심이 회복세란 분석을 내놨다. 매체에 따르면 하워드대가 지난 2-8일 7대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의 흑인 유권자 9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83%, 트럼프는 8%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이는 하워드대의 지난 9월 조사(해리스 81%, 트럼프 12%) 때보다 격차를 더 벌린 것이다. **박세용 기자**

경합주 맥도날드서 감자 튀긴 트럼프 “해리스는 일한 적 없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를 방문했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으로 수억달러 재산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음식점의 상징인 맥도날드를 찾은 것은 자신의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비해 자신이 진정하는 진서민 후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민주당



맥도날드서 감자튀김 만드는 트럼프

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거짓말

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

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의 벅스 카운티 피스터빌-트레버스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했다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양복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운터 뒤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았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는 창문에서 길 건너 맞은 편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던 한 손님은 “트럼프 2024”라고 외치기도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에 “저는 여기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면서 “이 일에는 큰 전문기술(expertise)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는 음식 및 아르바이트 측면에서 미국 서민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 국민 8명 중 1명은 살면서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맥도날드 측에 요청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에 “나는 맥도날드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면서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6편 ‘맥도날드’으로 계속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원장 Dr. 김동국 D.C.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악기 일반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정찰위성·핵잠수함... 푸틴 '김정은 버킷리스트' 기술 줄수도

(핵추진)

위험한 거래 우려, 한반도 비상 일각 "북·러 필요에 의한 시한부 관계" "러, 북한 키워 활용 가능성" 분석도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 등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제 KN-23 미사일 잔해. [사진 국가정보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러 간 '불량 동맹'의 실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전할 경우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온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서다. 향후 이 같은 북·러 동맹의 지속성에 따라 한반도가 냉전 회귀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새 북·러 조약)을 맺은 뒤부터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는 이미 예측됐다. 그럼에도 전투 병 파병이나 포탄 지원 등의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푸틴 대통령으로서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선 후 미국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휴전이나 종전 등 우크라이나전의 전환을 바꾸기 위한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푸틴이 결국 북한군 파병을 받은 건 무리수임을 알면서도 일단 전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병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 만큼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 아직 러시아에 대한 무기나 병력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간 북한은 한·미가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번 파병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체제 위협을 받는 와중에 무기와 병력을 대규모로 국

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파병까지 결심한 건 단기적으로 푸틴의 절박함을 활용해 이득을 취할 작기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력 송출을 의화별이에 심분 활용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김 위원장이 '버킷 리스트'에 올렸던 무기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우선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관련 기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최근 "핵추진 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정의 초기 건조 단체가 포착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직접적 위협의 증강을 의미한다. 또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권을 행사할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북·러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과 국내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공식 비준 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이번 파병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유사시 러시아에 군사 원조와 파병을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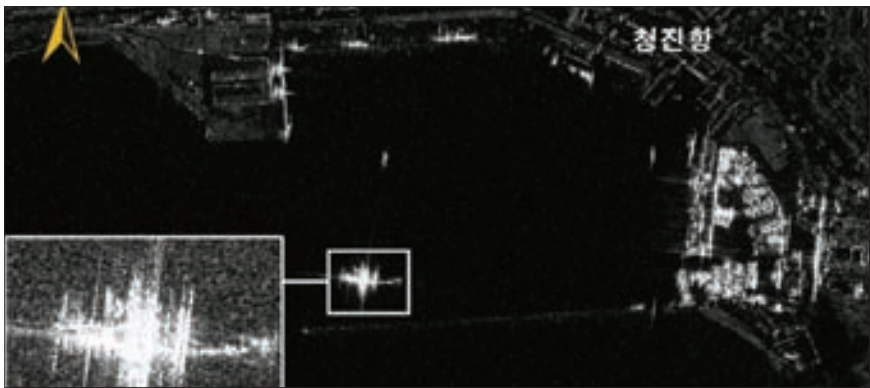
관건은 이런 북·러 간 밀월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정부 내에서는 푸틴과 김정은 간의 관계를 '시한부'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한·러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한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의 북·러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형성된 것"이라며 "외관상으로는 북·러가 한·미 같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미 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층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푸틴이 반서방주의를 내세우면서 장기 집권 목표를 확실히 설정한 만큼 진영 강화를 위해 북·러 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을 미국과의 대결에서 거대한 체스판의 '폰'(pawn·졸)처럼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 이익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러 결속은 강대국 진영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국제질서가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러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북한군 이송 움직임, 우리 위성이 포착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실이라면 우려"

국정원, 이례적 공개... 정보 심리전 수송 방법·투입 지역·부대까지 특정 전문가 "북·러, 무시하고 같길 닮듯"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증거로 위성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12일 북한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청진항에 접근하는 러시아 함정(왼쪽 네모 안).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에 대해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하고 있다. 군이 독자 수집한 정보는 물론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현대전에서 부각되는 '정보 심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보 자산의 노출 위험까지 감수한 이번 정보 공개가 향후 북·러의 행보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 보도'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송 방법, 투입 지역, 부대까지 특정했다. 북한 특수부대 이송 움직임을 한국 정찰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안면 인식기술을 적용해 북한군 미사

일 기술자를 특정하기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19일 "국정원이 대량의 물증을 푼 건 그만큼 정보의 신빙성에 자신을 갖고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에서 "과거엔 군사·안보 분야 정보는 절대 바깥에 노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추세가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유관 국가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국정원의 정보 공개로 북한군 파병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와 외신의 주목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기민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보 공개가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협력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욱 원장은 "현재 북·러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보 '대량 방출'에 대한 미국의 신중한 반응도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회의 후 국정원의 정보 공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맹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라 지적도 있다. 박현주 기자

위성턴 날씨 (°F)

| | | |
|------------------|--------------|--------------|
| 10월 21일(월) 79~50 | 22일(화) 82~51 | 25일(금) 64~44 |
| | 23일(수) 79~56 | 26일(토) 69~49 |
| | 24일(목) 66~43 | 27일(일) 69~52 |

위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원,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자세한 내용은 '연순향 리모'로 문의

SOLD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아마존 위해 VA에 원자로 추가?” 워싱턴 지역 핵발전소 반발 거세

SPECIAL STORY

아마존, 데이터센터 사용 목적 “소형모듈원자로(SMR) 계약”

아마존 계열사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버지니아의 전기공급업체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버지니아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무기로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유지했으나 현재 버지니아의 전기공급 능력으로는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설립이 어려워져 SMR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의 여러 환경단체들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취임 초부터 SMR 도입을 위한 여러 선행 조치를 진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면서 “정부는 아직 아무 검증도 거치지 않은 SMR을 주민들의 앞마당에 건설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존은 현재 4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35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10년래 추가 필요 전력이 600메가와트가 넘기 때문에 SMR이 최적의 공급 수단이라고 전했다. 아마존은 워싱턴주의 전기회사 노스웨스트와도 4개 소형원전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MR에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980년대부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원전 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소규모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개발해 왔다.

SMR은 1000메가와트급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의 전력을 생

산하는 소규모 원전으로, 원전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되거나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제품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SMR이 유일한 활로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발전소가 퇴조하고 있으나 재생가능에너지로는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에너지부는 오는 2050년까지 전국 에너지 수요량이 현재보다 5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예상 증가분 중 30% 이상은 데이터센터 공급용이다.

김옥채 기자



기념식에서 김광수 총장(왼쪽에서 세번째) 및 대학 관계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한인사회와 미래로 나아갑니다”

콜롬비아 칼리지 25주년 기념식 성황

개교 25주년을 맞은 콜롬비아 칼리지(총장 김광수)가 지난 17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9년에 설립된 버지니아 타이슨스 소재 콜롬비아 칼리지는 초기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 및 미국 주요 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교수진,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25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광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5년 동안 콜롬비아 칼리지가 이룩한 성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전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의 패션쇼, 태극 전통춤, 중국 전통쇼,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탤런트 쇼’도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콜롬비아 칼리지에는 현재 50여 개국 이상의 1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ESL, VESL(직업영어) 과정부터 2년제 학위과정 및 직업전문 과정(경영학과, IT 학과, 유아교육과, 치기공학과, 치료마사지학과 등)까지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ESL제외)은 연방 정부 학비 지원(FAFSA)을 연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ESL 과정부터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유학 비자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문의: 703-206-0508(줄리 박) 장소: 8620 Westwood Center Dr. Vienna, VA 22182 김윤미 기자

요금 징수 전 사전 통보 의무화 법률 시행

무료가입 기간 경과 전에 미리 알려야

버지니아가 지난 7월부터 각종 멤버십 무료 가입 기간이 경과하기 전, 요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의회는 미셸 말도나도 하원 의원(민주, 프린스 윌리엄)의 주도로 이 법안을 성사시켰으며 지난 3월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했다.

체육관 멤버십 비용을 3개월간 매달 10달러씩만 부과하다가 이 기간이 경과하면 150달러로 늘어나고 가입 후 6개월까지 매달 1달러의 구독료만 받던 신문이 7개월째부터는 20달러를 부과하는 등, 마케팅 상술로 자리잡았으나 소비자들의 해당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정식 요금 부과 전 취소를 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취소절차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이 만들

어졌으나 아직까지 많은 업체들이 통보 절차 등을 생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ET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각종 마케팅으로 무료가입을 했던 미국인의 48%가 을 취소하는 것을 깜박 망각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새 법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정식 요금 부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기업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H마트, ‘전남 농수산물 특판전’ 개최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라남도 가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정남진 장흥표고 절편, 미성 영광법성포참굴비, 완도 활전복 등 까다롭게 엄선한 전라남도의 다양한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판전은 오는 31일까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위치한 전 매장에서 진행 된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희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제72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행사

72nd Korea Veterans Day

지난날 목숨바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념으로 뭉쳐진 「안보·친목」 단체로서 제 72주년 「재향군인의 날」 을 맞이하여 새시대 선진향군 건설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오셔서 함께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24년 10월 26일 (토) 오전 11시
▶ 장소: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서울장로교회 교육관

재향군인회 참여 문의: 대한민국 육, 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의 향군 참여를 환영합니다. 연락처: 703-403-7080

| | | | |
|--|--|--|--|
| <p>임원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장: 김인철 사무처장: 김신호 육군부회장: 김용운 해군부회장: 이중기 공군부회장: 권용호 해병대부회장: 백상일 감사: 김덕만, 김중준 상조위원장: 이해월 상조위 부위원장: 홍성화 상조위 간사 겸 서기부장: 박노립 총무부장: 정우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협력부장: 최민엽 재무부장: 최민엽 홍보부장: 김용운 장학사업부장: 이진곤 복지부장: 송주섭 회원관리부장: 김종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부장: 김성현 봉사부장: 양유식 민원부장: 이중기 종교부장: 최한용 특임의료위원장: 문병권 | <p>이사</p> <p>이해월, 최민엽, 김종훈, 홍성화, 박노립, 이태하, 최한용, 송주섭, 박진섭, 김성현, 정세권, 이유찬, 김중규, 양유식, 이영식, 정찬문, 이진곤, 김덕만, 김중준, 정우용</p> <p>고문</p> <p>정규섭, 이창복, 김귀동, 김기화, 손경준, 서정태</p> <p>자문위원</p> <p>정세권, 이태하, 임호순, 손헌봉, 원용식, 김민수, 이건형, 김화성</p> |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비싼 물가·외로움에한국으로 역이민 급증



하지원(왼쪽)씨와 다라 해넌씨가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다. [마이헤리티지 제공]

“같은 엄마에게서 났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납니다”

한살 터울 한인 자매 화제 미국·벨기에로 각각 입양 DNA 검사 의뢰로 서로 확인 25일 서울에서 첫 감격 상봉

한국에서 각각 미국과 벨기에로 입양된 자매가 39년만에 처음 만나게 됐다.

다라 해넌(Darragh Hannan) 씨는 1986년 생후 8주였을 때 미네소타주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인디애나주에서 자라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양부모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를 입양했으나 입양 얼마 후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비슷한 나이의 여동생을 '사실상의 쌍둥이 형제'로 부르며 미국에서 함께 자라게 됐다.

해넌씨보다 14개월 먼저인 1985년에 태어난 하지원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가정으로 입양됐다. 두 살 때까지 해당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가 이혼, 다시 1987년 벨기에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다른 입양 자녀 9명과 같은 집에서 컸다.

이들이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DNA를 통해 전세계에 흩어진 가족을 찾는 '마이헤리티지(MyHeritage)'를 통해서였다. 해넌씨와 하지원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됐다는 다큐멘터리 등을 접하고 2010년대 말에 각각 DNA 검사를 의뢰했고 최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

해넌씨는 언니 하지원씨로부터 “안

녕, 우리가 자매인 것 같아”라는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DNA를 통한 가족 찾기를 신청한 지 6년이나 지나 그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다. 해넌씨가 DNA 접수를 한 2018년 당시만 해도 아시아계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원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다”며 “입양된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해넌씨의 입양 기록을 보면 생모는 당시 21세로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하지원이 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원은 “왜 나의 출생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머니를 만나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기는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하지원은 “하지만 여동생을 찾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다만, “내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울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생을 찾아 기쁘지만 “이로 인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다시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25일 서울에서 첫 상봉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부모를 찾아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남 기자

지난해 6월 LA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정아(40대) 씨는 현재 펄택 미군기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가 15년 만에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과 LA의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그는 “렌트비 등 물가가 너무 비싸졌고 외로움도 컸다”며 “지인을 통해 미군기지에서 시민권자가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됐다. 월급은 달러로 받고, 높은 환율 덕분에 한국 생활비 부담도 덜 된다”고 말했다.

1990년 미국의 한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김태유(63) 씨는 3년 전 아내의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역이민했다. 지난 30년 동안 김씨는 볼티모어, 애너하임, 시애틀 등지에서 생선 가게, 델리, 얼음 공장, 페인트 회사,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미국 생활비를 꾸렸다.

은퇴 후 역이민한 김씨는 “오랜 타지 생활 동안 스트레스와 슬픔이 많았고, 항상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여러 한인 이주자들이 미국을 떠나 모국인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이 급증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는 향수와 안락함을 위해, 2세대는 소수계로서 느낀 소외감과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던 1세대 한인 중 은퇴 후 역이민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사회보장국(SSA)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

1세대는 은퇴 후 고향으로
2세대는 소수계 부담 벗어
역차별, 기회주의 선입견도



금을 수령한 한인은 9379명으로, 2013년(3709명)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현재 4만 7406명으로 2010년 3만 5501명보다 1.3배 늘었다. 또한 202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4203명 중 60% 이상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은퇴한 한인 1세대의 역이민 주요 이유로,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떨쳐내고 모국에서 안락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꼽았다.

역이민을 선택한 한인들의 주된 정착지는 고향이다. 김태유 씨도 아내의 고향인 고창의 은퇴자 마을로 이사했다. 이 마을의 800명 중 3분의 1이 비슷한 이유로 이주한 한인 1세대다. 역이민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1960년 한국을 떠나 테네콜라에서 간호사로 은퇴한 차태희(80) 씨는 대전으로 역이민했다. 차 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여러 이점을 고려해 역이민을 결정했다.

차씨는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며 “대전은 생기가 넘치고 안전하다. 대중교통도 무료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비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은 한인 2세대들이 한국 재외동포 비자(F4) 등을 통해 현지 기업체, 대학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생활을 통해 소수계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2016년 엘라베마주에서 서울로 이주한 크리스탈 김(38) 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나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생활의 편안함을 설명했다.

반면, 역이민 생활에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실도 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들은 때로는 나이가 들어 한국 정부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일부 선입견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 2세가 재외국민 특례 입학 등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며, 미국 출신 한인을 기회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또한 한인들은 역이민 후 겪는 가치관과 문화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태유 씨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친근감, 넓은 공간, 여유로운 삶의 자세 등이 그립다”고 말했다.

한인 2세대들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자리를 찾을 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앤디 김에 공화 정책 인공기 공격

연방 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이 난데없이 ‘인공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뉴저지에서 C-SPAN 주최로 열린 공화당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착용한 넥타이(사진)가 북한의 인공기를 상징한다고 뉴저지 공화당 관계자가 비난하면서 불거졌다.

뉴저지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크리스피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왜 김 후보는 북한의 국기 모양을 한 넥타이를 매고 출연했느냐. 어느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역질나는 공격이며, 뉴저지 공화당은 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작 경쟁 후보인 커티스 배쇼 후

보는 “김 의원은 좋은 사람이며 애국적”이라며 “나도 평생 편견에 시달려서 잘 알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X에서는 김 후보의 주장에 수천 개의 댓글과 반응이 달리면서 성토장이 됐다. 대부분의 뉴저지 시민들은 “인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며, 백악관에서 일한 바 있고 의사당 폭동 당시 묵묵히 청소하던 김 의원에 대한 큰 모욕이다”고 적었다.

참전군인 출신인 테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알라노이)은 X 댓글에서 “외국인 혐오는 우리 정치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며 “인공기가 아니라 미국 성조기를 반영한 넥타이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인들도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



다.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은 “한인들이 어디든 출마만 하면 ‘영원한 외국인’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화당은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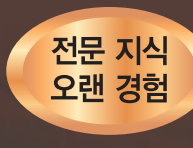
시민들은 김 의원의 댓글에 인공기 사진을 올리며 “어떻게 똑같은가”라고 항의하는 한편, 김 후보의 의사당 청소 사진 등을 공유하며 크리스피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본지의 문외에 김 후보 측은 “넥타이는 20여 년 전 대학 졸업 전후로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이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한민족 경제인 3000여명 전북대서 '한상 잔치' 연다

22~24일 한상대회 첫 상아탑 개최

양오봉 총장 "인재 인프라 보여줄 것"

전 세계 한민족 경제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한상대회) 제22차 행사가 22~24일 전북대 전주캠퍼스 일원에서 열린다. 한상대회가 상아탑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넓힐 기회를 가지는 가운데 국외 산업 동향 분석과 해외 취업에 관심 갖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02년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1차 행사를 시작으로 발전한 한상대회는 통상 매년 한 번씩 국내에서 열린다. 특히 2005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공동 주관을 맡아 지역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모하는 대회로 승화했다. 이에 매년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 기업인이 바이어로서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출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는 22~24일 제22차 한상대회가 열린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22살 청년한상, 청년에게 스며들다'라는 표어의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 전북대]

지난해 21차 행사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사상 첫 해외(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기도 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한상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재외동포청은 올해 2월 종합 심사를

거쳐 개최 장소를 전북대로 정한 바 있다. 이번 22차 대회엔 약 3000명의 경제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바이어로서 주도하는 비즈니스

미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전북자치도의 창업대전, 전주 국제드론산업박람회, 일자리 페스티벌, 한인비즈니스 CEO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등이다. 재외동포청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대학생 대상 토크콘서트 등을 마련한다. 대기업 전시도 마련된다.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LS엔트론이 자율주행 트랙터와 소형농기계 등을,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게차와 굴삭기 등을 전시한다. 시·군·흥보 부스를 통해서도 전북자치도 시와 군의 먹거리 등 특색 있는 품목이 소개된다.

대회를 개최하는 전북대는 대회 기간 240개 기업, 326개 부스를 수용하기 위해 8000㎡ 규모의 대형 행사장 설치를 마쳤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분지와외의 통화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상생하며,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도약하는 전북대

의 인재 인프라와 면면을 세계 경제인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는 지난해 정부의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만큼,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한상대회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라며 "국내 우수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계기로 한층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정작 수출에선 소외됐던 수많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로 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라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이 뜨겁다"며 "기업인 간 교류가 기업인과 학생 간의 교류로 확산하면서 기업들엔 우수 인재 확보, 학생들한테는 해외 취업 기회 제공의 의미를 가지는 행사로도 승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균 기자



양오봉 총장

한국 진출로 신성장 동력 모색

한미은행 서울사무소 개설 추진
뱅크오브호프에 이어 두 번째

한미은행(회장 바니 이)의 서울사무소 설립 추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형 한인은행들의 한국 진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인은행 중 한국에 사무소를 보유한 곳은 뱅크오브호프가 유일하다. 한인금융권은 미국 내 성장에 한계를 느낀 대형 은행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대상 영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사무소와 지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 미국 진출 급증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한인은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및 반도체 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대미 투자 환경이 개선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은 조지아와 텍사스 등 제조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활발하다고 전했다.

▶대미 직접 투자 한국인 증가

한인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한인은행의 한국 사무소 설립 추진에 일조했다고 봤다. 한국 국제청(NT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합한 개인 납세자의 미국 보유자산이 66억7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개인 해외



뱅크오브호프에 이어 한미은행이 서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화제다. 사진은 한미은행의 LA본점 전경. [중앙포토]

보유자산의 69.8%에 해당하며 압도적인 1위다. 그만큼 한국인의 미국 투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한 한인은행권 관계자는 "국제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를 합하면 개인 투자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건물 매입 등 투자 활동을 할 때 한

인은행을 이용하는 한국인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사무소는 개인 금융 고객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도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인은행들의 신성장 동력

한인은행의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중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인은행권 관계자들은 "다주 진출

로 한인은행들이 신규 활로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한인밀집지역에는 한인은행들의 지점을 내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형은행들의 입장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미주 공략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직접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부유층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 규모와 투자 규모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해서 한국 내 영업력 확대도 노릴 수 있다. 지점을 개설하면 여·수신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뱅크오브호프 또한 201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 지점 개설을 추진해 왔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기자회견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서울지점 개설의 지를 분명히 해온 바 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려조))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라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렸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츠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670; MD 25016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670; PA 106823; FL ML2525; SC 25016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670
www.nmlsconsumeraccess.org

‘하늘의 암살자’ 띄웠다…“미국, 하마스 지도부 추적 지원”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과 하마스 지도부 추적을 지원해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특수부대와 정보요원들로 구성된 일명 ‘융합센터’(Fusion Cells·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정부 내 여러 기관의 협력체)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250여명의 인질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간 며칠 후에 이들 인질 구출을 돕기 위해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병

력 수십명을 이스라엘에 조용히 파견했다.

JSOC 병력과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지원 임무를 맡았다.

미국의 정보는 지난 6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가자지구에서 인질 4명을 구출하기에 앞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원은 인질 구출뿐만 아니라 하마스 수뇌부 추적에도 집중됐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해 10·7 기습 공격의 설계자로 알려진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추적하는데 미국의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미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신와르를 사살한 다음 날인 17일 성명을 통해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 직후 내가 특수작전 요원과 정보 전문가들에게 가자지구에 숨어 있는 신와르와 다른 하마스

지도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신와르 추적이 속도를 내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 당국자들은 최소 6대의 미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인질 위치를 파악하고 생명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이스라엘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무인 공격기는 최장 14시간 비행

하며 광범위한 탐지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헬파이어 미사일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이스라엘군이 신와르에 대한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을 미국이 도왔다고 미 당국자들은 말한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의 땅굴에서 인질들을 살해한 지 몇주 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신와르가 숨어 있는 장소가 라파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서 신와르를 찾는 데 집중했고, 결국 이스라엘군이 그를 사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머스크 표현자유·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면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4억 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펜실베이니아 헤리스버그에서 자원 유세하는 머스크.

로이터 통신과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헤리스버그에서 연 지원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할 것임이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주 7곳에서 이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 당 47달러를 지급해왔다.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그 보상금을 100달러로 올렸다. 이어 이날 대규모 현금 지급을 추가로 약속하며 청원 참여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실제 유세 행사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선정한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머스크는 선정된 당사자도 사전에 이를 “전혀 몰랐다”며 “어쨌든, 천만요”라고 말하며 해당 금액의 수표를 건

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가 청원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조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이들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의제 지지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머스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는 그가 기득권을 뒤흔드는 사람이란 점을 증명한다며 그래서 아무도 해리스 부통령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한 뒤 그를 위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는 ‘아메리카 팩’에 3분기에만 약 7천500만달러를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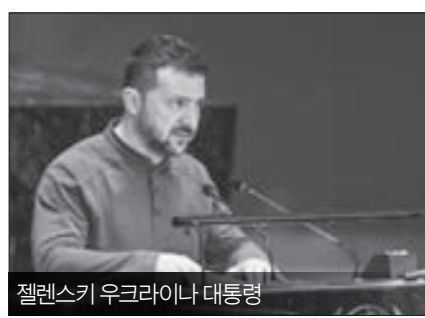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 러파병 국제사회 강력대응 기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전장에 배치된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영상 증

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 이(북러) 협력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 우리의 파트너들이 더 정성적이고 솔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공격 계획’ 기밀정보 온라인 유출”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준비 내용을 담은 미국의 기밀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약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

약시오스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준비에 관한 미국 정보문서 2건이 이란과 연계된 텔레그램 계정에 공개됐다고 전했다.

문서 유출은 이스라엘이 이달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몇주간의 보복 준비를 완료하는 시점에 발생



미국 국방부

한 것으로, 약시오스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문서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기밀문서는 ‘미들 이스트 스펙테이터’(Middle East Spectator)라는 친이란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왔다.

정기적으로 이란에 우호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이 채널은 미국 정보기관의 소식통에게서 문서를 받았다고 전날 주장했다.

▶ 1면 ‘맥도날드’에서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맥도날드 매장 방문은 해리스 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깔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등판 직후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부각하면서 친서민·중산층 후보임을 자임해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등에서 반복적으로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맥도날드에 확인했으며 그들은 ‘거짓말쟁이’ 해리스가 그곳에서 일한 어떤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녀는 결코 그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올린 이 글에서 “만약 내가 그곳에서 20분을 머문다면 내가 해리스보다 20분 더 그곳에서 일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진행한 통

화에 대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내 생각을 물었고 나는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으로부터 거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들(바이든 정부)은 그가 아무것도 하길 원치 않았다. 만약 그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같이 좋은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UCKOO

10월 프로모션

FALL IN CUCKOO

기간 9.27.2024 - 10.29.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10월 한정

3 HOT DEALS

SPECIAL GIVEAWAY

~~\$999~~ → \$549

+1년치 필터제공



펫 드라이어

Special Offer 1

특별가 \$449

+1년치 필터제공



마이크로 버블 클렌저

Special Offer 2

BUY ONE GET ONE

50%



CBT-11030RW

Special Offer 3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일시불 또는 렌탈 계약 SALE

일시불 구매 최대 30%할인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렌탈 계약 다운페이 OFF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Special Giveaway



안마의자 SALE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Special Giveaway

*3D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네타냐후 자택 드론 습격 하루 만에... 이, 헤즈볼라 보복 공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마스를 지원해 온 이란 모두 무력 대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와르의 죽음을 계기로 휴전을 이끌려던 미국의 기대와는 판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고, 가자지구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는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이 레바논에서 날아온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총리 부부는 이곳에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드론 3대가 날아왔는데 2대는 격추했고, 1대가 카이사레아 건물에 타격했다"고 밝혔다. 공습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나와 내 아내를 암살하려 한 이란의 대리 세력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란과 악의 축 파트너들에게 이스라엘인을 해치려는 자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와 지하 무기시설을 공습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9일 성명에서 "그(신와르)의 죽음은 저항의 축에 분명 고통스럽다"면서도 "그의 죽음은 저항의 축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마스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리아는 전날 방송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고 교도소에 갇힌 우리 죄수들을 석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인 인질들은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와르의 죽음은 (하마스를) 강

화하는 데에만 기여하고 점령자들은 곧 그를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와르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라고 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 해법을 찾기 위해 22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대선(11월 5일) 전 중동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최대한 피해를 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충지대'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의 죽음과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는 신와르가 최후까지 결사 항전한 영상이 퍼지며 그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른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수개월간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가자지구의 안전한 땅굴에 숨어 지낸다고 선전했지만, 팔레스

타인들은 전투복 차림의 그가 한 손에 부상을 입은 채 다른 손으로 나무토막을 던지며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영상 통해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중엔 4만 셰켈(약 1500만원)의 현금과 멘토스 사탕 등 신와르의 소지품 사진도 들어 있다. 이스라엘 측은 손가락이 잘린 신와르 시신 사진을 인쇄해 가자지구 남부에 살포하기도 했다. 또 신와르의 아내 모습이 찍힌 땅굴 방범 카메라 영상을 제시하면서 그의 아내가 3만2000달러(약 44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인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백일현·박현준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준비’ 담긴 미국 기밀정보 샐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준비에 관한 미국의 기밀문서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중동 텔레그램 채널 '미들 이스트 스펙테이터'에는 '최고 기밀' 표시와 미국 주도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만 열람할 수 있다는 표

시가 있는 문건 2건이 올라왔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계속 및 15~16일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란 제목의 문건엔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훈련, 드론부대 상황, 군수품 이전 등이 담겼다. 또 다른 문건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관찰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문건에 대해 "18일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을 밝히기 거부한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받았다"며 "우리는 독립적인 저널리스트로 어떤 정부기관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채널과 연결된 엑스(옛 트위터) 계정의 소재지는 이란이다. 미국 국가정보국(ODNI)은 문서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리의 해당 문서가 진짜라고 미 언론에 시인했다. 익명의 관리 CNN에 국방부 문서에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문서 유출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고, 이란 공격을 준비해 온 이스라엘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출된 2건의 문서가 "이스라엘군의 최근 위성 촬영 이미지를 담은 극비 정보 문서"라며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한 미국의 극심

한 우려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이란이 탄도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하자 보복을 예고해 왔다. 애초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 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미국의 만류에 공격 대상은 군사시설로 바꿨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미국 관리의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유출 상황은 매우 우려되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일현 기자

“트럼프는 잔인” “바이든만도 못해”... 네거티브 격화

미 대선 투표일을 보름 남기고 조박빙 대결 중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공세가 격화하고 있다. 해리스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회복세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한 지원 유세를 재개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19일(현지시간)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를

향해 "잔인하다"고 직격했다. 해리스는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재임 시절 보수 우위가 된 연방대 법원에 의해 2022년 폐기된 사실을 강조했다. 해리스는 이날 유세 장 객석에 고(故) 엠버 니콜 서면의 어머니가 참석한 사



해리스

실을 알리며 "트럼프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28세였던 서면은 2022년 조지아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자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낙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날 트럼프는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래트브 유세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이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해리스는

바이든만큼도 똑똑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만약 그가 바이든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세에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일대 철강노조원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미 시사주

간지 뉴스워크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리스에 대한 흑인 표심이 회복세란 분석을 내놨다. 매체에 따르면 하위세대가 지난 2~8일 7대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의 흑인 유권자 9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83%, 트럼프는 8%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이는 하위세대의 지난 9월 조사(해리스 81%, 트럼프 12%) 때보다 격차를 더 벌린 것이다. 임성영 기자



트럼프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워싱턴 로드 워드 워드 센터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헨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쪽/윈어웨이(+market)와 헨들리 로드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뉴스타가 새롭게 소개하는 커머셜 리스팅

메릴랜드 안전지역 리커 & 와인 (건물포함)
주매상 \$5만
현재 주인 거의 일하지 않고 있음
비즈니스만 \$2만

메릴랜드 위튼지역 Beer & Wine
주매상 \$38,000
아주 안전한 지역
\$900K

버지니아 알링턴 일본 식당
새로 꾸민 식당
렌트 \$14,500
\$8만

- ✓ 테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 ✓ 렌트비가 늦거나 안보내는 경우
- ✓ 잦은 고장으로 시도때도 없는 연락
- ✓ 타주나 한국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

일 잘하는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세요! 맡기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시면...

- 좋은 테넌트 선별과 선정
- 매달 렌트비 컬렉트
- 각종 수리
- 테넌트 사소한 문제 해결
- 고문 변호사와 테넌트 법적 분쟁 해결
- 해당 집/건물/주기적 점검/보수/수리
- 그 외 건물주 100% 대행

버지니아

| | | |
|---|---|---|
| <p>1 </p> <p>\$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틱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p> | <p>2 </p> <p>\$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p> | <p>3 </p> <p>\$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p> |
| <p>4 </p> <p>\$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투어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p> | <p>5 </p> <p>\$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p> | <p>6 </p> <p>\$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p> |
| <p>7 </p> <p>\$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은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 <p>8 </p> <p>\$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p> | <p>9 </p> <p>\$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
| <p>10 </p> <p>\$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붕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p> | <p>11 </p> <p>\$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p> | <p>12 </p> <p>\$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p> |
| <p>13 </p> <p>\$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벨몬테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p> | <p>14 </p> <p>\$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p> | <p>15 </p> <p>\$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며진 멋진 타운 홈. 마루바닥</p> |

메릴랜드

| | |
|--|---|
| <p>1 </p> <p>\$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p> | <p>2 </p> <p>\$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p> |
| <p>3 </p> <p>\$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p> | <p>4 </p> <p>\$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뒷뜰</p> |
| <p>5 </p> <p>\$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p> | <p>6 </p> <p>\$680,000 케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넓은 뒷뜰</p> |
| <p>7 </p> <p>\$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한 멋진 싱글 홈</p> | <p>8 </p> <p>\$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널 힐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쁜 집</p> |
| <p>9 </p> <p>\$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안나오는 집. 끝집.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p> | <p>10 </p> <p>\$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p> |

DC

| |
|--|
| <p>1 </p> <p>\$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p> |
| <p>2 </p> <p>\$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p> |
| <p>3 </p> <p>\$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p> |
| <p>4 </p> <p>\$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집</p> |
| <p>5 </p> <p>\$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체비체스바 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p> |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클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값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북 특수부대 선발대 1500명 러 파병 완료”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북·러 간군 사형력 강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북한군 파병은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비상상무기만 지원해왔던 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왼쪽 사진)을 확보했다며 18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해당 북한군 추정 인물 사진에 자체 AI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이 인물은 지난해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생산공장 방문 당시 수행한 미사일 기술자(오른쪽 사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의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말했다. 평남 덕천시에 주둔 중인 폭풍군단은 예하에 총 10개 여단(저격여단 3개, 경비병여단 4개, 항공육전여단 3개로 구성)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및 후방 침투 임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함대(수송 지원)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또 러시아 공군 소속 A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렌스크 등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관측이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 받았으며,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아·부랴티아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며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 인물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인근에서 포착됐는데, ‘북한관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국정원은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해 입수한 것”이

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거쳐 분석한 결과, 이 인물은 지난해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을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의 얼굴과 80%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는 분석상 동일 인물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제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가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남측을 겨냥한 무기들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앞서 북·러는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과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조약에 따르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자동 개입이 예견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는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공조를 확대해 북·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북·러 양쪽에 추가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와 관련,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정부는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외교관 추방이나 양국 민간인 교류 제한 등 다양한 층위의 독자 제재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는 제재와 더불어 러시아가 극도로 민감해하는 ‘살상 무기 지원 검토’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꾸준히 한국 정부에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엇은 물론 포탄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면 ‘방어용 무기→공격용 무기’로 지원 수위를 높여 갈 수 있다.

다만 이런 무기 지원 결정은 정부가 최대한 ‘마지막 카드’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의 ‘레드라인’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이라고 밝혔다”며 “북한군의 파병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유경 기자

전방 시찰 ‘서울 지도’ 꼭 찍은 김정은 “주권 침해면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최전방 부대 시찰 중 서울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은 적국”이라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못 박고, 남북 연결도로를 파괴하는 등 거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은 물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중·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인민군 2군단 지휘부(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2군단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했던 부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우리의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김정은이 ‘서울’이라고 적힌 지도를 펴놓고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명시한 것으로 미뤄 ‘수도권 침투 작전에 관한 지시’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재정적자 1조8330억달러... 팬데믹 제외 사상 최대

노령연금·의료보험 등 지출 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승도 영향

미국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조8000억 달러(약 2465조1000억원)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조6950억 달러)보다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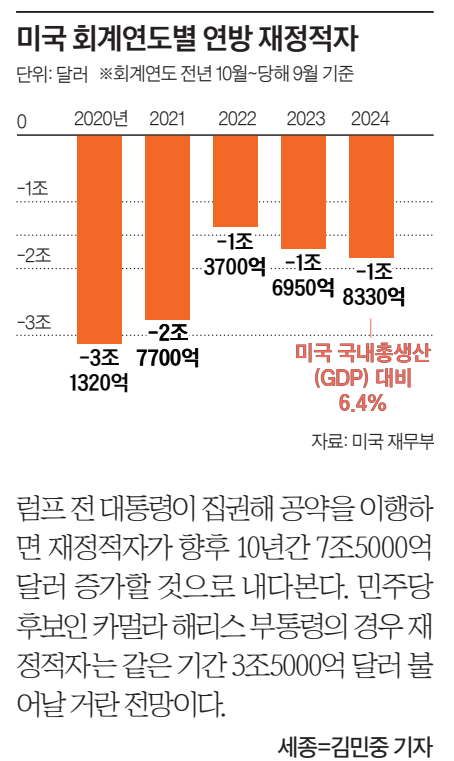
미국 재정 적자는 2019년까지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조1320억 달러→2021년 2조7700억 달러로 늘었다. 2022년 1조3700억 달러로 다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증가세다. 전년도 6.2%에 이어 올해는 6.4%로 더 커졌다.

정부 지출이 급증세인 게 재정적자 확대를 이끌었다. 올해는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1조5200억 달러)은 전년 대비 7% 늘어났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1조500억 달러)은 4%, 국방 지출(8260억 달러)은 6%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도 재정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올해년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1조1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부채에 대한 연이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적자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면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재정적자는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 불어날 거란 전망이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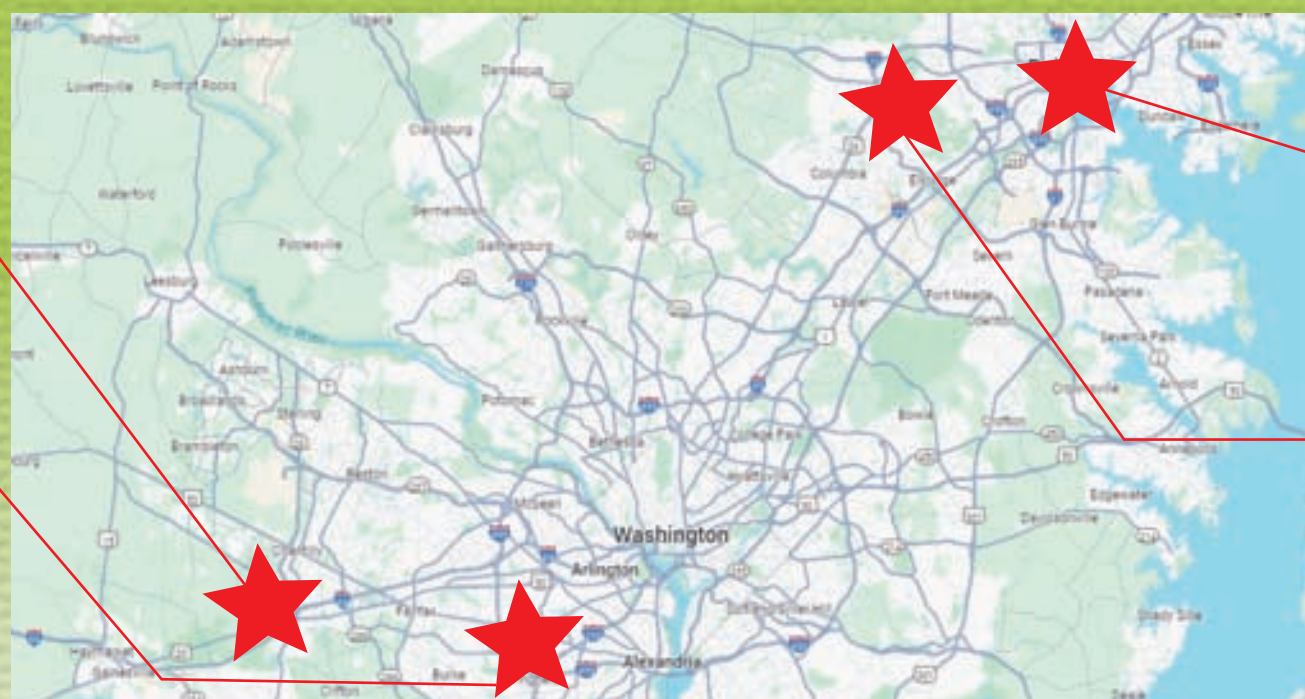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대통령실 “미니원전 4개 건설 계획, 연말에 발표한다”

(SMR)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용량이 170~350 메가와트(MW)인 SMR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 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연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다만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과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크게 동

“SMR은 성장동력·수출효과 상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로 국회동의 전망엔 “여야 따로 없어”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현황

| | 노형 | 출력 | 완공목표 |
|-----|---------------|------------|--------------|
| 한국 | i-SMR | 170MW 4개 | 2028년 인허가 목표 |
| 미국 | 뉴스케일 | 77MW 4-24개 | 2028년 (루마니아) |
| 중국 | ACP100 (링롱1호) | 125MW | 2025년 (건설중) |
| 캐나다 | MMR | 5MW 2개 | 2026년 |
| 영국 | UK SMR | 470MW | 2030년 |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의하지 않지만 삼성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오니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며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이 빅웨이브(큰 물결)에 올라타으로써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박 수석은 “기초과학에

본격 투자가 이뤄진 지 30여년이지만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연구를 내놓으면 머지않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자체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진 만큼 노벨과학상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다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서 배출된 점을 “노벨상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용 기자

오늘 대검 국감... ‘김여사 무혐의·총장 탄핵’ 난타전 예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의지도 없고 영장도 청구 안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21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관련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영장에 함께 범죄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 여사 주거지·사무

실·휴대폰까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월)는 모두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고, 2020년 11월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 지검장은 다음날(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실을 밝힌 뒤 “(브리핑에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원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29회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비교돼 편파 수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혜경씨 수사는 7만

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하고 본인 식대(2만6000원)를 뺀 나머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그 상대가 지금껏 이어졌다. 여야 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혜경씨가 국감에 출석하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기자



상암에 뜬 세계 축구 전설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넥슨 아이콘 매치' 이벤트 경기에서 세계 축구 전설의 공격수들로 구성된 FC 스피어의 델피에로와 피구(앞줄 왼쪽부터)가 드리블 연습을 하고 있다. 아이콘 매치는 넥슨의 축구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의 '아이콘 클래스' 소속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경기다. [연합뉴스]

인천 왕길동 공장서 화재, 7시간만에 불길 잡아

인천시 서구의 한 공장에서 20일 오전 큰불이 났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일대 공장 건물 30여 동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오후 7시45분쯤 모두 진화했다. 이때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화 지점은 약 300㎡(약 90평) 규모 철골조 지상 1층

짜리 건물로 조사됐다. 신고 접수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오전 9시14분쯤 대응 1단계(관할 소방서 전체 출동)를 발령했다. 불은 점차 주변 공장 건물로 옮겨붙었고, 소방은 강한 바람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일대에 최대 풍속 5m/s의 바람이 불었다. 소방은 오전 11시2분 대응 2단계(주변 소방서 추가 출동)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72대와 소방 헬기 5대, 인력 193명을 투입했다. 한때 불길이 주변 야산으로 향했지

만, 소방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소방은 오후 1시58분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화재 피해를 본 인근 공장 관계자들은 “불에 탄 화재지·생리대만 10억원어치인데 납품에 차질이 생겼다” “재고품과 기계가 모두 타버려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맑은 날씨로 시정까지 좋아 치솟은 검은 연기가 김포와 고양, 파주, 서울 마포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목격됐고, 소방당국에는 관련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맑은 하늘이 연기로 뒤덮였다” 등 목격담이 올라왔다. 인천구·박중서·신혜연 기자



20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한 기계 가공 공장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공장 건물 30여 개 동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사진 소방청]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진료과목

| | |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중 보험 적용 됩니다 |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산삼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정년 65세 시대... 행안부 공무원, 중앙부처 최초

(시설관리·미화 등 업무)

문 정부 때 만들어진 무기계약직 소속 기관과 단협 통해 복지 결정 2300명 대상... 단계적 정년 연장 육아시간 등 공무원 수준 개선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원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한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원 전체의 정년을 연장하는 건 행안부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무원에 앞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 개정·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소속 공무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개정했다.

공무직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생긴 직종이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無期)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속한 정규직 근로자다. 주로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임금·복지는 소속 지자체·기관과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정한다.

행안부 공무직은 2300여 명(청원경찰 제외) 정도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의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 다른 중앙부처보다 공무직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 공무원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60세를 맞은 해에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 용역직원의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다 보니 신규 채용된 60세 정년의 공무직과 ‘노노 갈등’이 있었다”며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일에 맞춰 소득절벽이 없도록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을 포함해 공무

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춰지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기업 부담이 늘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이 관련 논의를 더 확산시킬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신규채용이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우 경

기 침체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 공무원의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렸다. 그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또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연장할 수도 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포상휴가제도 신설했다.

한은화 기자

백두대간 품은 위기 청소년들 “돌아가면 엄마 밥 지어줄래요”

더중앙플러스 '호모 트레커스'

중고생 8명, 30일간 390km 완주

산악인과 함께 생활하며 끈기 키워

부모들 “눈빛 달라지고 대견해졌다”



백두대간 완주에 참가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소속 중고생들이 13일 새벽 연화봉을 향해 걷고 있다. 이들은 지리산 천왕봉을 출발해 태백산까지 백두대간 마루금 390km를 걸었다. 김영주 기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모두 백두대간 완주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벌들이 확 내려갈 것 같아요.”

지난 17일, 강원 태백시 태백산 천제단(1560m)을 앞두고 한산(14·가명)군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지리산 천왕봉(1915m)을 출발해 태백산까지 30일간 백두대간 마루금 390km를 걷는 ‘청소년 백두대간 완주’에 참가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소속 중고생 8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다. 이날은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들은 천제단에 올라 “다시는 사고 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중앙플러스(더중플)의 걷기 시리즈 ‘호모 트레커스’와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백두대간 완주를 기획했다. 6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한 청소년을 종교재단 등이 6개월간 위탁감호하는 가정법원의 처분 명령이다.

한산 군을 비롯해 신비(15·가명), 강산(16·가명), 백두(16·가명), 준산(17·가명), 이산(17·가명), 한범(18·가명), 김빈(18·가명) 군은 이날 태백산 장군봉(1567m)에 올라 한 달간의 백두대간 완주를 마쳤다. 백두 군은 “처음 트레킹 캠프에 참여한 8월만 해도 ‘내가 백두대간을 걸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400km를 완주하고 나니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거의 매일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중추 초반 이산 학생이 지리산 고리봉(1305m)에서 하산 중 무릎이 겹질려 병원으로 실려 갔다. 태백산 정상을 앞두고 신비 군이 바위 틈에서 용변을 보던 중 절벽으로 추락해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이때마다 동행자로 참여한 김미곤(52,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등) 대장이 학생들을 업고 산을 내려왔다.

처음엔 아이들끼리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잦았다. 매일 15~25km를 걷다 보니 몸이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다.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수차례. 그때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신부와 10여명의 동행자가 중재자로 나섰다.

한 달간 걷고 먹고 자는 루틴이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걷기를 통해 인내와 끈기, 절제력과 자제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매일 새벽 4~5시 야영장에서 일어나 침낭을 깨고 스스로 아침을 챙기고, 오

전 6시에 어김없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에 섰다. 오후가 되면 다시 야영장으로 텐트를 쳤다. 매일 저녁 7시엔 전체 미팅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이들 입장에서 40~60대 어른들과 매일 회의를 하는 게 부담이었지만, 낯이 언변과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5일 걷고 하루 쉬는’ 일정으로 5세션을 진행했다.

3세션이 지나자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체력이 좋은 아이들은 물을 더 지고, 스스로 쓰레기를 주웠다. 휴식일엔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 볶음밥과 계란후라이를 만들어 차렸다. 한범 군은 “엄마에게도 김치볶음밥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지난 18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한 ‘도착 파티’엔 12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부모들은 “눈빛이 달라졌다”, “산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대견해했다. 이산 군의 아버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백두대간을 걷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설악산에 첫눈... 오늘부터 '가을폭우'

(울 가을)

올 첫눈, 작년보다 이틀 빨라 내일까지 전국 최대 120mm 비

통과한 뒤 북쪽의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온 탓이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0.5도까지 떨어졌고, 한낮 기온 역시 평년보다 2도 이상 낮은 17.8도에 머물렀다. 18일에 기온이 31.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났던 제주에는 이날 낮 최고기온이 20.2도를 기록하면서 이틀 새 11도나 급락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의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에 저기압이 또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22일까지만 전국에 많은 가을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1일 오후 남부 지방과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30~80mm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남부 지방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22일에 5~40mm,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10~50mm의 비가 예상된다.

천권필 기자



20일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인근 나뭇가지에 올가을 첫눈이 쌓여 있다. 설악산의 첫눈은 지난해(10월 21일)보다 이틀 빠르고, 2022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이다. [뉴스1]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www.naturadent.net

“**염증 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당첨!**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무보혐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젠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 의사상 수상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매매 / 렌트 | 금액 | 설명 | 주소 | 기간 | 세입자 |
|-------------|-----------|---|--|------|------------|
| SOLD | \$900,000 |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 1년 | Non Korean |
| | |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 3년 | 주재원 |
| | | | 22*0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 2년 | Non Korean |
| | | | 1*11 Fallbrook Ln, Vienna, VA | 2년 | 주재원 |
| | | | 1*02 Abbey Way, McLean, VA | 3년 | 교민 |
| | |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 2년 | 교민 |
| | |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 2+1년 | 국제기구 |
| | | | 1*89 Dawson St, Vienna, VA | 2년 | 교민 |
| | |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 2년 | 주재원 |
| | |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 3년 | 주재원 |
| | |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 1년 | 주재원 |
| | | | 7*51 Tremayne Pl, McLean, VA | 1+1년 | |
| | | | 411* 11th St, Arlington, VA | 2년 | 주재원 |
| | |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 3년 | 국제기구 |
| | | | 2*69 Oakborough Sq, Oaktown, VA | 18개월 | 주재원 |

*그 외 30여명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우리말 바꾸기

이어지는 문장

“그가 새로 참여해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대를 꾸민다.” 이런 문장들이 은근히 있다. ‘참여해’에 ‘-여’가 있는데, 뒤쪽 ‘가르쳐’에도 ‘-여’가 나온다. 이러면 읽기가 편치 않다. 뜻도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 ‘참여하다’ ‘가르치다’ ‘꾸미다’ 등 여러 정보가 한 문장에 무리하게 들어가 있다. 다음처럼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낫다. “그가 새로 참여해 주대를 꾸민다. 그는 이 주대를 위해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상대 팀의 초반 공세에 밀려 더 나은 전력인데도 잇따라 실점해 쉽게 무너졌다” 역시 읽기가 부담스럽다. 문장 길어도 길어 보인다. ‘밀려’ ‘실점해’의 ‘-여’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실점하다’를 ‘실점해’ 형태로 가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다. ‘실점해’ 대신 ‘실점하는 등’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더 간결하다. “더 나은 전력인데도 상대 팀의 초반 공세에 밀렸다. 경기 초반에 잇따라 실점해 쉽게 무너졌다.”

“귀찮아서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에서는 ‘아서’가 이어졌다. 그렇다 보니 문장 전체의 길이는 짧지만 간결해 보이지 않는다. 앞쪽과 뒤쪽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느낌이다. 같은 형태의 반복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다음처럼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귀찮았기 때문에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실리콘밸리 노트

지역 자원봉사는 ‘인싸’ 되는 지름길



정김경숙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이 중 1%도 안 되는 최소 1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20년 되었다. 돈을 기부하는 건 쉬워도 남을 위해 시간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이 결국 나에게 도움된다고 깨달은 때가 있다.

구글코리아에서 12년 정도 근무한 후 5년 전 구글 미국 본사 디렉터로 발령이 나 실리콘밸리로 이사했다. 시차와 생활 변화, 무엇보다 언어 격정으로 첫 6개월 동안 밤잠이 안 왔다. 내가 일하는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했다. 본사 커뮤니케이션팀에는 영어 원어민 중에서도 말발과 글발 있는 친구들이 몰려 있던 터였다. 하버드 영문과 졸업생들과 전직 기자들 출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친구들을 팀원으로 두는 입장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어에 익숙해져야겠다는 마음에 영어 콘텐트를 밤새 틀어놓고 듣다가 새벽녘에 겨우 선잠이 들곤 했다. 또 내가 사는 동네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침저녁 조깅을 하는가 하면 동네의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도 나가 보았지만, 남의 동네에 얹혀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현지에 정착한 지 5년 넘는 한국인 구글 동료에게 물었다. “도대체 언제 ‘아싸’(아웃사이드) 느낌이 없어질까요? 언제부터 ‘인싸’(인사이드) 느낌이 들까요?” 그 동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싸’ 느낌”이라며 “‘인싸’ 되는 거 포기하세요”라고 답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이곳이 내 동네라는 생각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한국에서 해왔던 ‘1주일에 최소한 1

시간 남을 위해 써보자’는 다짐이었다. 바로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지역 내 자원봉사할 곳을 찾았다. 우선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빅토리아식 건물인 박물관의 해설사를 지원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범죄 기록이 없는지 증명하고, 백과사전보다 두꺼운 바인더 자료에 실린 박물관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하루 4회 해설을 맡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박물관이 폐쇄됐다.

다시 알아본 곳이 시니어센터 배식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었다. 코로나로 자원봉사자는 줄었고, 무료 식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더 많아졌다. 매일 점심때 나가서 200인분의 식사를 배식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마스크를 이중 삼중으로 쓰고 점심을 개별포장해 전달하기도 했다. 4년 넘게 배식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은 물론 자원봉사 친구들을 사귀게 됐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도 알아가게 됐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내 동네라는 느낌이 든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웃들이 뭘 이야기하고 관심 있는 지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속감을 느끼려던 작은 것이라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

게 되었다. 한 달 전 5년의 실리콘밸리 생활을 일단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10배속으로 돌아가는 듯한 한국 사회로 돌아와 받은 첫 느낌은 나 자신이 ‘어리바리’해졌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밤잠이 안 왔다. 매일 밤 영어 오디오북을 들으며 사상 가장 더웠다는 늦어름을 보냈다. 미국 땅에서처럼 남의 동네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다. 다시 돌아온 서울이지만, 처음 살아보는 동네라서 낯섦이 더 컸던 것 같다.

다시 불현듯 난 생각. ‘그래, 낯선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지역 봉사 활동을 해보자.’ 이 지역이 내 곳이라고 재정의할 주체는 결국 나 자신 아닌가. 그래서 동네에 있는 올림픽 공원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또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가게’ 1일 봉사를 바로 신청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기도 한다.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거나 지역 선거에 참여한다고 해서 소속감과 동질감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뜻 있는 일을 할 때 소속감이 솟지 않을까. 꼭 무료 봉사활동일 필요는 없다. 매일 지나다니는 방이시장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주말에 한두 시간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됐다. 추석 연휴 기간 동네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에도 지원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해보고 싶다. 꼭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함께 사는 세상’을 느끼는 지름길이다.

디지털 세상 읽기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검색 엔진과 AI 챗봇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입력창의 위치다. 검색 엔진은 예외 없이 화면의 상단에, AI는 하단에 검색창이 있다. 이견 우연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신저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AI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검색 엔진에서와 사뭇 다르게 행동한다. 우선 질문을 할 때 대화처럼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하는 검색과 달리 사용자 개인의 특성이 드러난다. 더 중요한 건 AI 챗봇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챗GPT의 사용자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

다고 한다. 사용자들은 챗GPT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도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AI 챗봇에 넣은 질문, 명령어들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은 물론이고 기업의 기밀이나 민감한 연구 내용을 입력하는 건 위험하다. 그렇게 들어간 내용을 AI가 익히게 되면 이를 찾아서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용자의 행동이 반갑다. 인터넷의 많은 서비스처럼 AI도 광고가 수익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지금도 소셜미디어의 광고 타겟팅 능력에 놀란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올리는 포스트로 그렇게 사용자를 잘 파악한다면,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AI 챗봇에 털어놓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기업은 더 엄청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압력을 받는 순간,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차원의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 | | |
|--|--|---|
|  <p>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언제, 어떻게 사야할까?</p> |  <p>신디 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p> |  <p>데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p> |
|--|--|---|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

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박유진
변호사

Q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

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 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

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한청수
한의학·자연치유 박사

Q 오장육부의 압력 조절이 통증과 질병 치유의 열쇠

▶문=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올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기술은 모든 것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인공지능(AI)이 4개 상을 수상하며 AI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보여주었습니다. AI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에서도 혁신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가장 진보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승강부침 시술’(승강침)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벨 5 자율주행차는 도로 상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AI 기술 덕분에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승강부침 침술은 신체 기관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여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만성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치료법은 신체의 에너지와 압력 흐름을 제어하여 각 환자에게 목표한 치유를 제공합니다.

이 침법의 독특한 장점 중 하나는 지금까지 어느 책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신체의 양경과 오장육부(5장 6부)의 맥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들이 찾지 못한 로드맵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는 내부 장기의 압력 차이를 식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어렵고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승강부침 시술’(승강침)은 AI가 기술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 치유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시는 분이 만성 통증, 장기간의 질병 또는 다른 치료법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귀하가 찾고 있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강부침 시술’(승강침)은 희망, 치유, 그리고 건강과 웰빙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치료를 원하거나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생을 바꾸는 이 치료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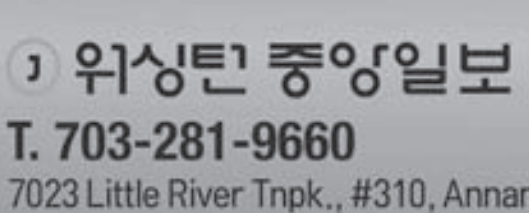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HOA NO"

\$540,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625,000



독점 WOODBRIDGE 싱글홈

방4/화3/1/2, 716 sf & .62 acres
"GREAT VIEW" 옛날 모델하우스

\$65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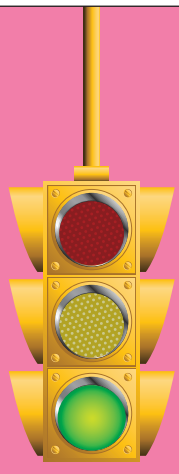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October 21, 2024 C

다시 돌아온 글로벌 유동성 증가 시대

돈 푸는 중앙은행, 채권값·주가지수 상승 가능성 커져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중국인민은행(PBOC)도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도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 시대가 재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3번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첫 번째는 2000년 정보통신(IT) 혁명 거품의 붕괴이고, 두 번째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한 금융위기였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대봉쇄(Great Lockdown)로 세계 경제는 세 번째 침체를 경험했다. 위기 때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했고, 양적완화(QE)를 통해 통화 공급을 대폭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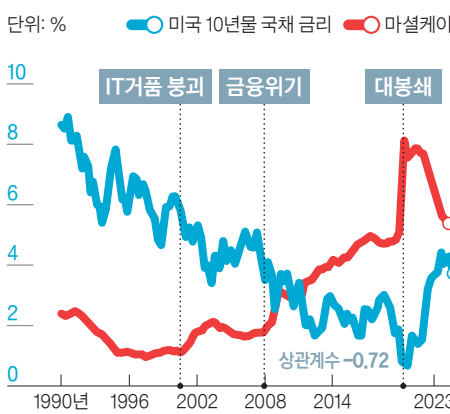
경제 위기마다 '마셜케이' 급증

한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가는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마셜케이(Marshallian k)'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광의통화(M2)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위기가 오면 예외 없이 마셜케이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대봉쇄 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마셜케이가 급증했다. 미국이 그랬다. 2019년 말에 0.69였던 마셜케이가 2020년 2분기에는 0.89로 두 분기 만에 28.8%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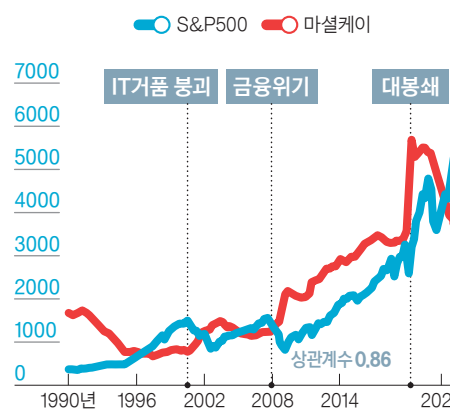
이렇게 급증한 통화는 채권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초래했다. 2020년 8월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1%까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3~12월



미국 마셜케이와 시장금리



미국 마셜케이와 주가지수



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다. 2020년 1.2%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에는 8.0%로 1981년(10.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Fed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크게 웃돌다 보니 Fed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2월 0.0~0.2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7월에는 5.25~5.5%까지 인상됐다.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QT)으로 통화량이 실물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 결과 마셜케이가 2020년 2분기 0.89에서 지난 2분기에는 0.72로 18.5% 낮아졌다. 통화량의 상대적 감소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 만기 수익률이 2023년 10월에는 거의 5%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다.

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킨다. 필자가 분석해보면 그 효과는 13~18개월 뒤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3년 '유동성'으로 이어집니다

에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이 68% 오르는 등 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더불어 Fed의 통화 정책은 실물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은 2020년 -2.2%로 역성장했지만, 2021년에는 6.1%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같은 기간 -2.5%에

서 8.8%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화 증가에 따른 저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의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상승률도 높아졌다. 특히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법 대표 변호사(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40 years of experience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Hanmi Homehealth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나투라 치과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건처리, 형사처벌
www.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차기 미 대통령, 삼성·SK 반도체 세금혜택 줄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되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봉쇄라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 경영자들이 긴장 모드다. 마침 다음 미 대통령의 '대(對)중 반도체 라인'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됐다. 바로 미 정보기술(IT) 업체를 대변하는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다음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보고서다. 중앙일보가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스티븐 이젤 ITIF 부대표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위해서다. 다음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해 일몰조항이 반도체 지원금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신 5년마다 기업이나 연구소의 반도체 개발 성과와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계속 줄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 단독 제재는 그만”

-미국 다음 대통령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덜란드 ASML 등에 무엇을 요구할까.

“대선이 치열해 해리스나 트럼프가 반도체 연합전선을 어떻게 꾸릴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우리(ITIF)의 제안은 분명하다. 미국만 독자적으로 하는 수출 통제는 그만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 한국, 대만, 네덜란드, 영국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로 이뤄진 다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자 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귀찮게 해주면 좋겠다.

“한국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어 반도체 기술 등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워킹그룹은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제한할 뿐 아니라 서방 기업이 중국에 줄 수 있는 생산면허까지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워킹그룹은 미국이 여러 나라를 참여시켜 자국 논리를 관철할 때 자주 구성하는 기구다. 워킹그룹은 사전에 합의된 메뉴얼대로 판단하는 실무조직이다.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워킹그룹이 구성되면 삼성전자 등은 지금보다 한결 빠른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수출 제재는 양날의 칼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힘을 모아 중국이 반도체 기업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과 공공 부문에 대한 정의다. 공공 부문을 현재 개념대로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유한 기업이나 펀드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나 펀드' 등으로 넓게 정의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의 보조금이 WTO 회원국에 피해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도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반도체 봉쇄를 하면 할수록 미 기업들이 손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미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미 기업의 실적

악화한다. 그 바람에 재투자가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 기업이 수출 제재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수출 규제를 우리(ITIF)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친 작은 정원(small garden, high wall)'이라고 부른다. 반도체 등에서 '핵심기술(chokepoint technologies)'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만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친 작은 정원' 같은 수출 규제는 현재 백악관 핵심 참모들도 동의하는 규제 방식이다. 미국도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놓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삼성, 세액공제 못 받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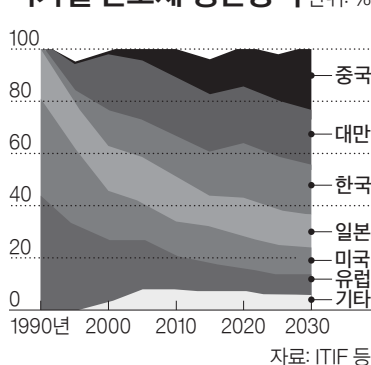
-보고서엔 다음 미 대통령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chip war)에서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담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반도체 기업이 미국 땅에 생산설비를 지으면 세금을 최대 2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 2022년 만들어진 반도체·과학법(CHIPS)이 규정한 인센티브 가운데 세액공제가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 등은 2027년 1월 이전에 미국 안에서 공장을 착공해야 한다. 이 기간 제한이 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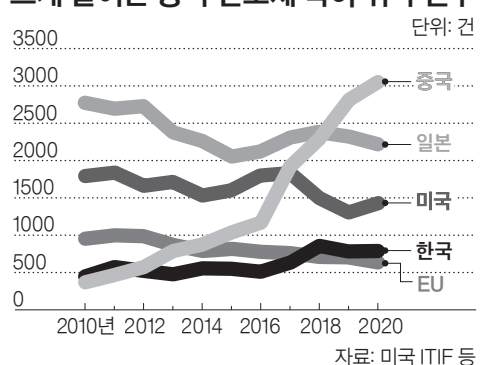
-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미 IT 업계는 다음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 세액 공제를 2020년대 마지

국가별 반도체 생산능력 단위: %



크게 늘어난 중국 반도체 특허 취득 건수 단위: 건



>> 1번 '유동성'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미국 경제의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함께 낮아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완만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급하게 가느냐에 있다. 미국 경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탄력적이다. 특히 고용이 그렇다. 2020년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기업들은 그해 3~4월에 일자리를 2189만 개나 줄였다. 그 전까지 거의 10년간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인 셈이다. 그 이후 지난달

까지 미국의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은 2868만명 늘었다.

미국, 성장률·물가 동시 하락 국면

그러나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렸다고 생각한 기업 경영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Fed의 점도표에 중립금리가 2.9%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6년

까지 Fed는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마셜케이가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기대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3.7%까지 하락했는데, 앞으로 마셜케이의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마셜케이가 2024년 2분기 미 10년 국채 수익률(분기 평균)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면 2.45%로 실제(4.31%)보다 훨씬 낮았다.

문제는 주식 시장이다. 마셜케이와 S&P500 사이에 상관관계수가 0.86인 것처럼, 마셜케이가 증가할 때 주가지수도

상승했다. 2020년 3분기에서 지난 2분기에 마셜케이가 18.5% 감소했는데도 같은 기간 S&P500은 76.1% 상승했다.

마셜케이만으로 S&P500을 추정하면, 2024년 2분기 S&P500이 124%나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마셜케이가 증가하면서 주가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주식 시장에 거품이 커지고 후유증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증시 부양 나서는 중국

중국의 마셜케이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78이었던 마셜케

이가 2020년에는 2.13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2.32로 더 높아졌다. 최근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0.2% 상승에 그쳤다. 올해 1~9월 물가상승률도 0.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만큼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신중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 인민은행은 2018년 이후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정책금리도 인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대형은행 8.5%→8.0%, 중소형 >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DC 리커 + 건물

디씨 리커와 코너 건물 포함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백5십만불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매일,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페어옥스몰

버블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8000불, 7만불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0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2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익 \$11,000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복권 매출 3층
VA 알링턴, 25만불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MD 몽고메리카운티, 조건부 임대계약, 50만불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ww.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하이브리드 연금 관심 쑥... 손실 보호와 수익도

<RILA>

구조화 연금(RILA) 활용

구조화연금(RILA)은 주요 주가지수를 활용하는 투자옵션을 제공한다. 시장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정한 수준까지 손실 리스크를 없애준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적 보호장치다. 그래서 구조화 연금은 투자성연금(VA)과 지수형연금(FIA)의 하이브리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상품 자체의 리스크 수준도 그래서 투자성연금과 지수형연금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전혀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라야 한다. 그렇다고 고수익을 위해 필요한 리스크를 다 수용할 의사는 없다.

내가 원하는 손실 보호 수준만큼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잠재적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투자옵션의 경우 10% 시장 하락까지 손실보호를 선택한 후 시장이 상승하면 S&P500 기준 15~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일반적인 투자도 연간 15~20% 수익률이면 높은 편이다. 혹시 시장이 하락하면 10% 하락까지는 손실이 없고, 그 이상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 투자자의 손실이 된다. 시장이 15% 하락했다면 5%만 투자자의 손실이 되는 것이다.

▶손실 보호액 선택

손실 보호액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품에 따라 조금



구조화 연금은 본인의 투자 리스크 수용 정도와 바라는 수익률을 잘 따져서 투자 옵션과 기간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씩 차이가 있지만 10%에서 40% 사이라고 볼 수 있다. 100% 보호액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사실상 잠재적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 있다.

100% 보호액 옵션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100% 손실 리스크를 없애주는 지수형 연금이 더 적절할 것이다.

손실 보호액은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투자사가 손실을 떠안는 부분이다. 20% 손실 보호액을 선택하면 시장 하락 시 20%까지는 투자자가 손실을 감당한다. 그 이상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투자 기간도 중요하다. 이 손실 보호액이 적용되는 것이 각 투자옵션의 투자 기간에 대해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투자옵션들의 투자 기간은 1

년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2~6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손실 보호액을 가져가는 옵션들도 있다. 왜 이런 다른 투자 기간들이 있고, 이것이 투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자 기간 의미

투자 기간은 손실 보호액이 적용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최종 수익률이 결정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1년짜리 투자옵션은 손실 보호액이 투자를 시작한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다. 1년이 지나면 해당 투자옵션과 기간이 자동 갱신되거나 투자자가 다른 투자옵션과 기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매년 평균 세 차례 이상 5% 하락을 경험한다. 10% 이상

하락도 평균 한 차례 이상 경험해 왔다. 특정 1년 사이 최소한 10% 이상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운'이 나쁘면 1년 사이 그 이상의 하락장 경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1년짜리 투자옵션은 변동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이 마이너스로 마감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지난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은 61.1%였다. S&P500 기준이다.

반면 5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전제할 때 시장이 40% 이상 하락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 이상 하락한 경험은 1.5%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다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관찰이다.

▶투자 기간 선택

1년 단위의 투자 기간 옵션은 매년 수익이나 손실의 결과를 본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다. 반면 투자 기간이 긴 옵션은 상대적으로 수익 포텐셜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수형 연금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긴 옵션을 선택하면 그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투자자로서 지루한 일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결정되는 해에 시장이 하락하면 지난 수년간 벌었다고 생각한 수익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수형 연금을 활용할 경우 이런 이유로 긴 투자 기간 옵션 사용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조화 연금에선 투자 기간이 길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해질 소지

는 없다. 수익 포텐셜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하지만 리스크는 오히려 단기 투자 옵션에 비해 낮아진다. 1년은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지만 5년은 하락했다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조화 연금 안에서는 선택한 투자 기간이 끝나지 않을 때라도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든지 한 투자옵션에서 다른 투자옵션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5년짜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선택한 투자 기간 중 어느 지점에서나 충분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되면 그간의 수익을 챙기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손실 보호액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선택한 투자 기간의 만기가 오는 시점이다. 선택한 투자 기간 중간에는 손실 보호액의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셈이다. 보호액을 적용해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기가 몇 년 후라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계좌가치는 만기 이전에도 계속 변동하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실질적 제한요인은 아니다.

구조화 연금 안에서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과 기대수익률을 반영해 다양한 투자옵션과 기간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 관리와 잠재적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권 최아메리츠 에셋 대표

6.5%→6.0%)했고,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逆)레포 금리(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도 1.7%에서 1.5%로 내렸다. 이에 더해 모기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부동산 부양 의지를 나타냈다. 보험과 증권회사 등에 주식 매입을 위한 5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식 시장도 부양하고 있다. 부양 정책 발표 후 상하이종합지수는 4일 만에 21.4%나 급등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마셜케이는 2.31이다. 2000~23년 통계로 분석해보면 중국의 마셜케이가 1% 증가하면 상

하이종합지수는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주가지수는 16.9% 저평가됐고, 올해 2분기에도 16.3%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앞으로 마셜케이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주가지수도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한국, 통화량 느는 데도 주가 하락

우리나라 마셜케이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씩 높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 0.86(1996년)이었던 마셜케이는 1998년에는 1.20으로 39.2%

나 증가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한 단계 올라갔다. 2019년에 1.41이었던 마셜케이는 2022년에는 1.64로 15.9% 증가했다. 그 이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올해 2분기에는 1.5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4분기 이후에는 마셜케이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

비) 1.6%로 안정됐고,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이전에 이미 통화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2%였던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이 지난 7월에는 6.2%로 상승했다.

2000~23년 통계로 회귀분석해보면 마셜케이가 1% 증가할 때 코스피는 2.6%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마셜케이는 1.58이고 이에 따른 적정 코스피는 3081이었다. 6월 말 코스피가 2797.82였던 것을 고려하면 코스피는 9.2% 저평가된 셈이다. 그 이후 주가는 더 하

락했고 마셜케이는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가 저평가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서 소비 등 수요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마셜케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각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주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자산 중 채권과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될 시기인 것 같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CBMC
Korean CBMC of North America

CBMC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1부 : 2024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BOI 리포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 벌금은 하루당 \$5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부 : CBMC란 무엇인가?

강사 안일송 변호사 / 김경태 회계사
일시 10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
장소 MARYLAND INNOVATION CENTER
 6751 Columbia Gateway Drive
 Columbia, Maryland 21046

문의 kyptaxinfo@gmail.com
 240-252-9825 (MD)
 703-303-5542 (VA)

신청 http://promo.websiteinnovator.com/cbmc-seminar
 혹은 전화를 사용하셔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후원: KCBMC 동부연합회 - 엘리콧시티, 락빌, 디씨, 콜럼비아, 센터빌, 페어팩스 Y지회

3P CONSULTING
PURPOSE · PASSION · PROFIT

PART 16. 광고 효과 두 배 이상 쉽게 늘리는 비밀? ②

>광고 효과 2배 증폭?

"아니, 광고비는 그대로인데 세일즈가 두 배로 늘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어, 잘나가는 경쟁사가 알려주지 않는 비밀 공개, 두 번째 시간이다.

돈 더 쓰지 않고 새 고객 두 배 이상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퍼의 힘을 사용하면 된다. 오퍼가 매력적일수록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오퍼를 만들 때는 조심해야 한다. 보는 이의 마음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미끼 던지듯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 반대로, 고객의 입장이자라면, 감성에 이성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발 뒤로 물러나 관찰할 필요도 있다.

>고객 사로잡는 오퍼의 레시피?

마력적으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오퍼에 언제나 나타나는 레시피가 있다.

첫째, 고객 필요에 맞춘 혜택. 둘째, 긴급성과 희소성. 셋째, 행동 명령이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물리면, 지갑을 열게 하는 파워를 몇 배나 향상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고객 필요에 맞춘 혜택에 대해 다루었으니,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배워보자.

2) 긴급성과 희소성으로 흔들기?

잘 반응하는 오퍼에는 긴급성이나 희소성이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둘 다 있으면 폭발력은 더욱 증폭한다. 요즘 온라인 세일즈 페이지에 매초 줄어드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영원히 놓친다는 두려움을 무의식에 연결해 놓았다. FOMO (Fear Of Mission Out)의 긴급성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구매 재촉을 한다.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카운트 다운 시계를 안 넣어도 된다. "오늘까지!", "이번 주말까지만!"과 같은 마감일 명시만으로도 효과는 뛰어난데, 심지어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효과는 뛰어난데, 오퍼 자체가 매력적이고 특별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남들과 비슷한, 차별 없는

오퍼로는 긴급성을 쏟아부어도 어렵다.

희소성도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온다. "딱 50개 한정 판매" 또는 "선착순 10명에 한정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이 제한된 오퍼는 이 창을 닫으면, 다시 보실 수 없습니다." "5가지 보너스 혜택은 지금 구매하시는 분께만 드립니다." 등 희소성에 어필하는 문구들은 마술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주무르고 애태운다.

3) 행동 명령으로 마법 완성?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라는 명령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행동 명령은 실제 행동을 유발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에서 작업한다. "지금 클릭하세요.", "오늘 연락하세요." 등의 행동 명령 문구는 언제나 마지막 부분에 강한 펀치 라인 역할을 한다.

고객 필요에 맞춘 혜택을 나열하고,

긴급성이나 희소성으로 강력하게 부각한 후라도, 액션을 독촉하는 한방이 빠지면, "그래서 어찌라고?"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뜨겁게 달궈진 구매 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언제나 짧고 강한 행동명령으로 힘있는 오퍼의 마법을 완성하라.

오늘 내용을 연습해서 나만의 강력한 오퍼를 광고해 보라. 예전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만날 것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든 노력이 저절로 맞물려, 자고 있을 때도 수확을 쏟아내는 퍼널에 대해 알아보자. 왜 세일즈에 눈부신 차이를 만드는지, 그렇다면 로컬 사업체도 어떻게 활용해서 경쟁을 지배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자.

>특별한 오퍼, 랜딩 페이지, 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systems.com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엄기욱
Mountain LLP · CPA

세금 보고 누락

표준공제액보다 소득 적어도 보고가 원칙 누락 발견 미납 통지 수령, 정정 보고해야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매한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

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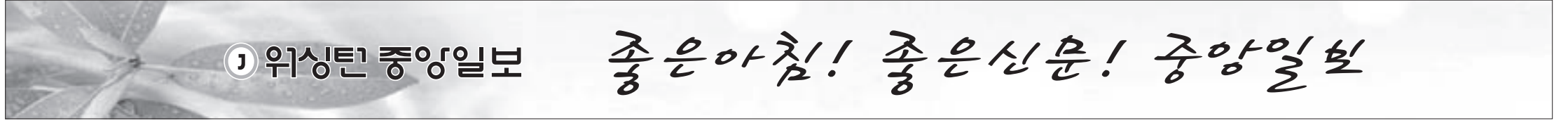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

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 | | | | |
|---|---|--|---|--|
| <p>SOLD</p> <p>Hanover</p> <p>\$580,000 타운홈, 방3, 화4, 차고2</p> | <p>UNDER CONTRACT</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 <p>COMING SOON</p> <p>Perry Hall</p> <p>\$575,000 싱글홈, 방3, 화2</p> |
| <p>UNDER CONTRACT</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 <p>UNDER CONTRACT</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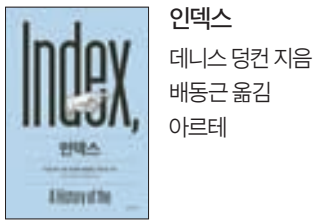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 | | |
|---|---|---|--|---|--|
|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검색 이전에 색인, 지성사 위대한 발명품



인덱스
데니스 덩턴 지음
배동근 옮김
아르테



113세기 성구사전을 만든 수도원장 '생세르의 휴'의 모습을 14세기 중반에 그린 그림의 일부. 21세기 영국 작가 리처드슨의 소설 『클러리스』에 실린 '앞서 배열된 감정들의 목록' 색인에 대한 색인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영국 작가 리처드슨의 소설 『클러리스』에 실린 '앞서 배열된 감정들의 목록' 색인에 대한 색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알라미, 영국도서관-브리잔 이미지)

색인의 역사를 추적한 책 『인덱스』의 말미에도 어김없이 색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의 색인은 452쪽에서 487쪽 까지 서른다섯 쪽이나 된다. '가독성/판독성 142'에서부터 '히에로클레스(Hierocles), 『히에로클레스가 고결하며 가치 있는 삶을 가르친 피타고라스의 황금 시편에 대하여』 404'까지 한글 표제 어들이 가나다순으로 열거돼 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기타 항목의 색인(A, a, a 123~125-z, z, z)이제 잠들 시간 이야-색인 작성자)이 붙어 있다. 색인업자 협회에 소속된 전문 색인 작성자 폴라클라크 베인이 작성한 원작 영어색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필요에 따라 옮긴 이가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전문 연구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 색인이 있다는 것쯤은 아는데 평소 이를 눈여겨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독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색인' 혹은 '찾아보기' 형태로 첨부된 '인덱스(Index)'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라 여겨졌을 법하다.

하지만 인덱스는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린다. 인덱스는 책 내용 중 특정 개념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한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을 분류하고 목록화해 접근이 쉬운 정보로 만들어 온 유용한 도구였다. 데니스 덩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영문학 교수는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파피루스에서부터 고대 점토판, 중세의 종교서술, 현대 구글과 헤시태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색인의 역사를 탐구해 『인덱스』를 펴냈다.

색인의 먼 조상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적게 잡아도 두루마리 4만 권 이상을 보유했던 당대 최대의 도서관 책을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정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시인이자 학자이면서 도서관 사서이기도 했던 칼리마코스는 모든 저술을 장르에 따라 수사학, 법학, 서사시, 비극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 목록 안에서 저자들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두루마리가 보관됐던 함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카탈로그 표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색인'을 시사하는 출판업자 수 있는 칼리마코스의 '목록 두루마리' 『피나카스

』는 아쉽게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후대의 다른 여러 저술에서 언급됐다.

본격적인 '색인의 산파'들은 1230년을 전후해서 비슷한 시기에 영국 옥스퍼드와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했다.

중세 잉글랜드의 석학인 로버트 그로스데스트는 당대의 강연자이자 설교자로서 옥스퍼드대 총장과 링컨교구 주교를 역임했다. 그는 시인이자 정치인, 수학자 그리고 종교개혁가이기도 했다. 그로스데스트는 자신이 이론 방대한 독서에 체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거대한 목록 『다블레』를 통해 그가 접했던 개념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을 한 데 모으고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그것들의 위치를 기록해 두는 식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적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이룩했다.

파리 생자크 도미니크회 수도원장인 '생세르의 휴'는 최초의 성경 성구사전 만들기를 지휘했다. 수도원 수사들은 일

을 분담해 알파벳을 하나씩 전담하거나 나눠서 맡아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쓰고 그 단어의 용례를 기록했다. 성구 사전은 감탄사 'A, a, a'와 함께 시작해 'Zorobabel(스룹바벨, 유대의 통치자)'로 끝난다.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가지 색인은 두 종류의 대표적인 인덱스를 잘 보여 준다. 그로스데스트는 보편 색인을 대변한다. 그는 교부들의 모든 지식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의 이교도 전통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원천으로 '줄여 내기'를 시도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 색인(distinctio) 혹은 개념에 대한 색인의 시조다. 텍스트에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개념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색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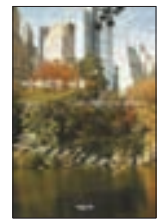
이에 비해 생세르의 휴가 창안한 방식은 단어 색인, 용어 색인(concordance)이다. 그 색인에 실린 용어들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일 뿐이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본격적으로 색인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표시자가 필요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쪽 번호 표시는 구텐베르크 이후 백 년이 지나야 모든 책에 찍히게 됐다.

디지털 세계인 21세기는 검색의 시대다. 무엇이든 키워드만 넣고 찾으면 눈 깜박할 사이에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동화된 용어 색인의 시대에도 과연 책에 색인이 필요할까. 인터넷이 인쇄된 책을 없애지 못했듯이, 주제 색인과 색인 편찬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컴퓨터는 성가신 작업을 제거해 줬고 주제 색인 작성자들의 작업이 전적으로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줬다.

한경환 기자

엄친딸 미국 의사의 뿌리와 정체성 찾기



아메리칸 서울
헬레나 로 지음
우아름 옮김
마음산책

"한국에는 이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주변에서 닮아야 한다고 하는 아이. '엄친딸'" 한국에서 태어나 우간다를 거쳐 미국에서 자란 저자는 이 딸의 또 다른 뉘앙스를 안다.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 그때는 몰랐지만, 언니들과 동생은 나를 싫어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자매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처럼 의사가 됐다. 한편으로 '착한 딸'이었다. 어머니 말에 토를 달 줄 몰랐고, 의학 아닌 문학에 대한 마음을 일찍 접었다. '엄친딸'처럼 '착한 딸'도 마냥 좋은 뜻이 결코 아니다. 레이던트 시절을 비롯해 직업적인 생활에서도 종종 질곡이 되곤 했다.

그의 회고록인 이 책의 우리말 부제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다. 백인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의대 교수였던 그는 2004년 의사를 그만둔다.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일에 대한 회의감과 여러 인간적 아픔이 짙은 상태였다. 그리고 다시 대학에서 글쓰기 공부를 시작한다. 책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면면이 담겼다. 미국 이민 이후 아버지에게 벌어진 일, 소송을 비롯한 의사로서 경험한 일, 어머니의 자살 시도, 자매들과의 불화, 함께왔다는 말로 부족한 지난한 이혼 과정, 뒤늦게 그 상처를 마주한 어린 시절의 일 등을 고루 담아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부모를 비롯해 가부장제 시대의 질곡 역시 어른거린다.

우간다에서부터 영어를 익히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는 모국어를 잃었다. 미국의 한인들에게서 한국 사람이 한글말을 못한다는 비아냥을 듣거나, 반대로 격려를 얻기도 했다. 뒤늦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왕래가 없던 한국의 이모네서 뜻밖의 환대를 받고, 지독히 힘든 시절 한국 드라마를 도피처 삼기도 했다. 쿠바 여행의 계기도 한국 드라마 '남자친구'였다. 물론 그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드라마와 다른 쿠바의 면면도 이내 발견하지만, 그렇게 '나'를 다시 찾아나서고, '나의 삶을 살아가려는 여정'이 담긴 이 책은 그의 삶의 완결편이 아니다. 작가로서 그의 첫 작품, 새로운 출발이다.

이후남 기자

책꽂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지음, 돌베개)=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8명을 여러 해에 걸쳐 만나면서 진학·취업·결혼 등 청년 문턱의 삶까지 담아냈다. 25년 경력의 교사이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각각의 삶을 조금씩 다른 초점에서 주목하고 사회적·정책적·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할 지점을 짚는다.



PR인의 꿈, 그리고 성공(김경해 지음, 북적임)=우리나라에서 'PR'을 '산업'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꼽히는 저자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PR의 미래를 전망했다.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홍보 전쟁 이야기 등 풍부한 현장 사례들과 함께 공중의 인식 변화시키기, SNS 시대의 위기관리 대처 등 생생한 PR 노하우가 담겼다.



뗏목(조천현 지음, 보리)=다큐멘터리 PD인 저자는 2004년 안목강에서 처음 뗏목을 봤다. 수시로 접경지역을 찾아 영상·사진 작업을 해온 그가 찍은 뗏목과 뗏목군들 사진 가운데 102점을 담은 사진집. 강물에 목재를 띄워 운반하는 모습도, 이른바 '복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거나 쉬면서 짓는 표정도 모두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애국의 계보학(실라 미요시 야거 지음, 정희진 옮김, 나무연필)=역사, 젠더, 민족주의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신체호·이광수·현오창·애국부인·박정희·김대중 등을 아우르며 한국의 근대 정체성을 만든 서사를 살핀 미국 동아시아학 교수의 2003년 저서. 그는 사머니즘 연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6월 항쟁을 목격하고 연구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세종 송보감

-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정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 소설서 가려진 부분 영화가 복원 '다름에 대한 존중' 생생히 그려 김고은의 자연스러운 연기도 한몫



과에서 걸도는 재희와 흥수는 절친한 사이가 되고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20대를 통째로 담은 '외장 하드'가 된다.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박상영(36)은 한국 문학의 비주류였던 쿼어 문학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작가다. 2019년 세상에 나온 연작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창비)이 그 주인공. '재희', '우럭 한접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캉스' 등 네 편의 단편으로 이뤄진 원작은 2022년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부커상 롱리스트(1차 후보)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쿼어 소설로는 이례적으로 10만부가 넘게 팔렸고 부커상 후보에 오른 이듬해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다. 국내에서는 젊은작가상대상과 신동엽문학상을 받았다. 이달 '대도시의 사랑법'을 영화와 드라마로 만날 수 있다. 1일 개봉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원작 중 '재희'만을 118분 영상에 담았다. 자유로운 영혼의 재희(김고은)는 과 동기 흥수(노상헌)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비밀을 지켜주며 그와 친구가 된다. 21일 공개되는 동명 드라마(티빙)는 박상영 작가가 직접 극본을 썼고 원작 단편 네 편이 전부 담겼다. 지난 11일 전화로 그와 대화를 나눴다.

“영화가 원작 캐릭터 더 살려줘 주인공 재희의 매력 통통 튀어”

(영화 속 김고은)

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가 그걸 충실하게 복원했고 원작의 캐릭터도 더 살려주셨어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재희를 연기한 배우 김고은은 이 영화를 두고 “다름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고은씨가 작품을 정말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

장치로 쓰였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요.”

-소설 속 화자 '영'은 '박상영'을 상상하게 합니다. 영이 불문과를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요. (박상영 작가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독자가 소설을 읽으며 남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몰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소설을 쓰다가 대사와 지문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극본 작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문자 매체는 속마음을 쓰면 끝나는 거지만 영상 매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또 소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전능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드라마는 제작진이 있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항도 있고요.”

-드라마 작업만의 재미가 있다면.

“드라마는 더 노골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작업이에요. 소설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죠. 그게 싫지 않았고 배우는 재미도 있었어요.”

-극본 작업을 제안받았을 때 고민도 있었을 텐데요.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웹드라마 공모전에서도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주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닿으면 작품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홍지유 기자

10대 갤러리 문턱 넘은 '화가 하정우'... “30년 뒤 작가로 평가받고 싶다”

영화배우 하정우(46·사진)가 16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삼청동 학교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올해 제작한 회화 38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은 '네버 텔 애니바디 아웃사이드 더 패밀리(Never tell anybody outside the family)'. “가족 외의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정우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대부'의 명대사다.

그는 2010년 첫 개인전을 연 이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전시를 열어왔다. 열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는 좀 더 특별해 보인다. 국내 10대 갤러리 중 하나인 학교재에서 연다는 점에서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그가 기자들 앞에 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하정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시를 열었지만, 이번 전시 제안을 받고 감회가 더 특별했다”며 “마침 올해 촬영 일정이 없어 전력투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루틴'을 지키며 작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그림이 좋아 여기까지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정우는 또 “대학 졸업하고 불투명했던 내일을 버티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그림 그리기는 시간이 나를 위로해줬다.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재미있었다. 제 시간과 열정이 쌓여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그동안 거침없는 색과 선명한 원색으로 주변 인물이나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왔다. 이번 전시엔 가면과 한국 전통 탈을 소재로 한 '마스크' 시리즈, 기하학적인 문양의 페르시안 카펫에서 영감을 받은 '카펫' 시리즈 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카펫 연작은 2022년 모로코에서 영화 '비공식작전'을 찍던 중 시작됐다. 당시 촬영을 위해 5개월간 모로코에 머물렀던 경험은 카펫 위에 그림을 그린 작

품에서 시작해 아예 캔버스에 카펫 문양 자체를 그린 다양한 작품으로 이어졌다. '카펫' 시리즈는 이전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화면 가득 채운 추상 문양과 섬세한 세부 표현이 두드러진다.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눈에 띄는 것은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하게 대비되는 색상이다.

하정우는 중앙대 연극학과를 졸업했다. 20대 중반에 문구점에서 수채화 물감과 스케치북, 4B 연필을 사고 화집을 구입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장·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등의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리며 기법을 익혀나갔다. 우찬규 학교재갤러리 회장은 “우리 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전시를 열게 됐다”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전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업 작가가 아닌 배우로 메이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는 점에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많은 사람에게 ‘잘 그린 그림’을 뛰어넘어 ‘윙글 있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배우 하정우’를 넘어 ‘화가 하정우’로도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0년에 개인전을 처음 열고 15년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안 좋은 이야기가 98% 정도 된다”며 “그래도 제가 이 작업을 이어가고 깊이를 쌓아간다면 70대 이후에 (작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극 한방병원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1. 옷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여성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조국 위한 음악 만들리라, 삶의 마지막 불태운 스메타나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주로 소비하다 보니 딱히 새로운 게 없어서 그럴까.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클래식 음악계는 작가들의 생몰 연도가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 그래서 한 해 한해가 대개 누군가의 탄생 몇 주년이거나 누군가의 사망 몇 주년으로 기념되고 꾸러진다. 작년에는 브람스 탄생 190주년과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으로 바빴고 올해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이다. 스메타나의 조국 체코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그의 삶과 음악에 관심이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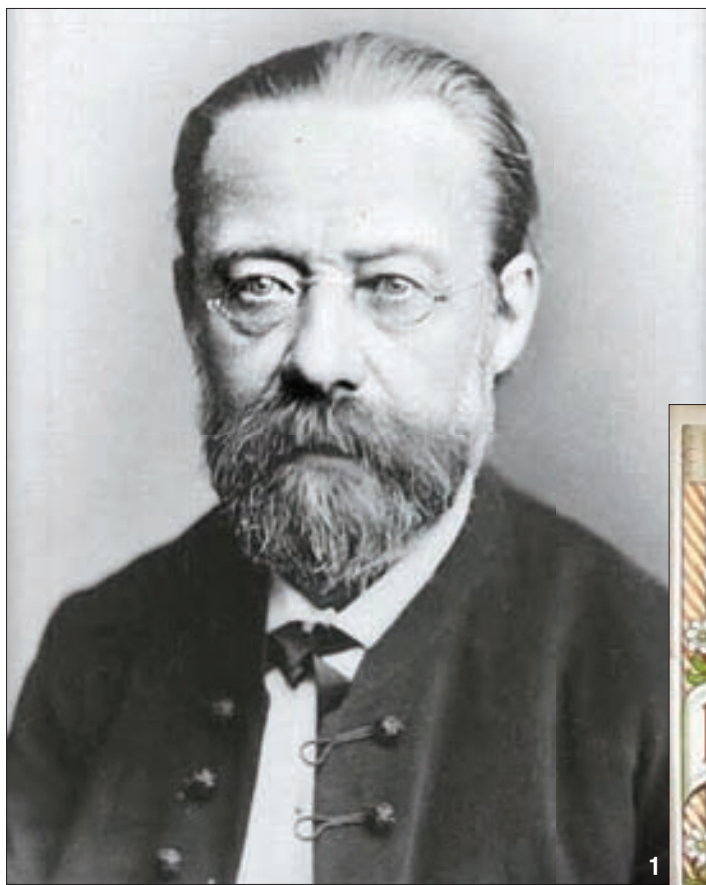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수도 빈도 예외는 아니다. 신년음악회와 함께 세계적인 빈 필하모닉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인 쇤부른 궁전의 여름밤 콘서트에서도 스메타나의 인생 최고작 '블타바'를 비롯해 오페라 '팔려간 신부'와 '두 과부'의 춤곡들을 연주했다. 체코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맞서 싸웠던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 세월이 흘러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의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을 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이다.

체코 혁명 주도 보로프스키와 절친

체코의 전신인 보헤미아 왕국은 역대 왕들이 종종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한때 제국의 황실이 왕국의 수도 프라하에 있었을 정도로 번영했으나, 19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합병된 이후에는 변방의 위치로 전락했다. 보헤미아의 고유문화 역시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독일인들의 이민이 이어지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왕실에서도 체코어 대신 독일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스메타나도 어려서부터 독일어를 말하며 자랐다.

그러던 그가 10대가 되면서 민족의식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 훗날 체코 혁명을 주도하는 시인 카렐 하블리체크 보로프스키와 절친으로 지낸 영향이 컸으리라. 15살의 스메타나가 홀로 프라하로 유학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던 것도 한 해 앞서 프라하로 떠난 보로프스키 덕분이었다. 프라하에서 스메타나는 체코 민족 부흥 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인 요세프 용만이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848년, 유럽에 군주제의 전복을 요구하는 혁명의 물결이 일자 프라하에서는 보로프스키가 주동이 되어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봉기를 일으켰고, 스메타나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시민군과 프라하대학 학도군들을 위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저항 음악을 작곡해가면서.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감행된 프라하 봉기는 오스트리아 정규군에 의해 빠르게 진압되면서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리고 보로프스



1 보헤미아의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을 맞았다. 2 보헤미아의 민족 춤을 등장시켜 민족 정체성을 구현한 오페라 '팔려간 신부' 일러스트 표지. (사진 사회평론)



키를 포함한 혁명 주도자들이 모두 투옥되거나 추방당하게 된다. 정치적인 희망을 잃어버린 스메타나는 상실감을 품은 채 피아니스트로서 연주 활동을 재개했다. 허약한 체질 탓에 강렬한 연주를 펼치지는 못했지만, 쇼팽 스타일의 섬세한 연주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생계를 위해 음악 학교도 열었다. 처음에는 12명의 학생으로 작게 시작했으나 민족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에 빠르게 기틀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자 사랑하던 카체리나 콜라르조바와 결혼을 했고, 부부는 네 명의 딸을 낳았다.

한편 스메타나는 점점 연주보다 작곡에 대한 열정이 커졌고 적지 않은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2년간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그의 첫 교향곡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연이 거부되고 말았다. 게다가 2년 동안 어린 딸이 셋이나 연달아 사망하고 죽마고우이자 혁명 동지였던 보로프스키까지 망명지에서 세상을 떠나 스메타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정치적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제적인 알렉산더 폰 바흐 남작이 보헤미아를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망한 스메타나는 스웨덴 예테보리로 거처를 옮겼다.

1861년, 5년 만에 체코로 돌아온 스메타나의 이목을 끈 것은 프라하에 국립 오페라 극장이 설립된다는 소식이었다. 프라하는 빈에 앞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흥행하고 '마술피리'를 초연했을 정도로 오페라를 사랑하는 음악 도시였으나, 아직 체코 작곡가가 만든 체코어 오페라가 나온 적은 없었다. 스메타나는 오페라야말로 체코의 민족 정체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악 장르라고 생각했다. 극음악인 오

페라는 연극적 서사가 있을 뿐 아니라 무대 장치와 의상 등을 통해서도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음악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돌아왔지만, 음악계는 스메타나를 거부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한 이유였겠으나 겉으로는 스메타나가 리스트와 너무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들에 따르면 스메타나 역시 리스트와 바그너처럼 위험한 진보주의자라는 것이다. 스메타나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기로 한다. 먼저 그는 완벽한 체코의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미숙했던 체코어를 문법부터 다시 배웠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일까, '브란덴부르크 사람들'이 안 폰 하라흐 백작이 주최한 체코 오페라 공모전에 당선된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나온 희극 오페라 '팔려간 신부'는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두며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다 주었다.

그의 성공은 체코 오페라라는 선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가 만들어 낸 체코 음악의 기적 같은 쾌거였다. 스메타나 오페라가 특별한 점은 다른 오페라들과 같은 아리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민족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사용되던 전통적인 민요 가락을 자신의 오페라에 쓰지 않았다. 대신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보헤미아의 전통적인 민속춤들로 체코의 토속적인 정서와 언어를 보여주었다. 가장 유명한 그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에서도 극적인 주요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생기가 넘치는 흥겨운 보헤

미아 춤판이 벌어진다. 오페라의 성공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스메타나는 프라하 오페라단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으나 반대파들은 그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스메타나의 오페라가 오케스트라 중심이란 점을 들어 그를 바그너주의자라고 비판하는 한편 스메타나 때문에 다른 체코 작곡가의 오페라들을 위한 상연 기회가 없어진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해임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안톤 드보르자크와 같은 유명 음악가들의 지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이러한 사태를 겪으며 스메타나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고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조국' 보헤미아 산·강 등 소재

인후 감염으로 시작된 그의 건강 문제는 발전에 이어 양쪽 귀의 청력을 차례로 잃게 만들었다.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스메타나가 선택한 길은 인생의 마지막 역작을 작곡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걸작 '나의 조국'은 그렇게 탄생한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오페라가 아니라 교향시라는 기악 장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교향시란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지만 시나 소설 같은 문학적 서사로 구성된 관현악이다.

'나의 조국'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보헤미아의 혼을 담고 있는 산과 강, 유서 깊은 성, 신화적인 전설을 소재로 삼았다. 6곡의 교향시로 이루어진 이 대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몰다우'로 잘 알려진 '블타바'이다. 블타바는 보헤미아 남부 작은 샘에서 발원해서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보헤미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인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큰 강이 되어 도도하게 흐르는 블타바의 생명력에 빚어 보헤미아의 민족정기를 표현하고 있다.

'나의 조국'의 작곡을 마친 스메타나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현기증, 경련, 일시적인 언어 상실과 함께 우울증, 불면증, 환각까지 생겼으며,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제정신을 잃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그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옮겼고, 1884년 5월 12일 그는 그곳에서 60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스메타나를 흔히 '체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체코 사람들에게 통하는 마음의 울림을 생생하게 소리로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강제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민족의 소리로, 국토가 강점된 현실에서 '나의 조국'이야말로 그가 기원하고 꿈꾸던 해방의 공간이자 해방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의 절절한 조국 혼에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그의 탄생 200주년을 축하한다.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상담내역 | 파트 A & B | 파트 C | 파트 D |
|------|---|--------------|------|
| |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 |
| | 이중 특별 필요 플랜 | | |
| |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 |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ELFOTO STUDIOS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내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샷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운동·재미 다 잡았다 남녀노소 매달리는 이유



1 지난 8월 목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초등학생 선수가 암벽을 오르고 있다. 2 경기 전 몸을 풀고 있는 학생들. 김홍준 기자, [사진 김주원]

“자전거로 제주도에서 남원까지 왔어요.” 김현준(8)군의 이 말을 아버지 김주운(49)씨가 이어받았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나가려고요.”

이들 부자는 차박도 하며 전국 대회 투어 중이다. 지난달 7일 열린 대회에는 현준이 할아버지 나이쯤 되는 김동진(63)씨도 참가했다. “설 연휴 때보다 어깨가 넓어졌네. 어휴, 저 팔뚝 봐라.” 이모 이현민(54)씨가 추석 밥상머리에서 말을 꺼내자 조카 김태훈(23)씨가 답했다. “스포츠클라이밍 덕분이죠.”

지난 추석 당일 포함, 연휴 닷새 내내 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문을 열었다. 태훈씨 같은 2030세대가 넘쳤다. 4050세대도 뒤섞였다. “사람이 하도 많아 대기할 정도였다”고 김모(48)씨가 전했다. 가수 설현이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클라이밍 모습은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체 스포츠클라이밍이 뭐라고.

스포츠클라이밍은 난데없이 등장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첫 인공암벽 대회가 1990년에 생겼으니, 그전 슬금슬금 굴뚝 지핀 시기까지 어렵잖아 40년 역사다. 그런데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요즘 무서울 정도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조규복(60) 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 감독의 말처럼 뜨겁다. 그는 “2021년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도쿄올림픽 때만 해도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인구는 50만 명 정도였는데, 바닥을 탄탄히 받치던 중장년층이 꾸준히 늘고 청년층도 급증하면서 3년 새 3배인 150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모임 커뮤니티인 문토가 지난해 조사한 2030 관심사도 1위가 등산, 2위가 클라이밍이었다. 지난 파리올림픽이 거기에 불을 키웠다.

대회선 다른 선수 동작 볼 수 없게끔

격리

파리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8월 10일, 서채현(21) 선수가 출전한 스포츠클라이밍 리드 결승 중계방송 시청률은 7.93%(닐슨코리아·전국 기준), 분당 기준으로 10.02%에 달했다. 같은 날 신유빈의 여자 탁구 단체전과 여자 태권도가 모두 동메달을 땀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이날의 모든 중계를 압도했다. 그 시청률에 기여했다는 광미정(55)씨는 “별 기대하지 않고 보다가 손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긴장됐다. 어쩐지 우리 딸이 추석 연휴 하루걸러 운동장(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뜻함)에 가더라”고 했다.

“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운동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김모(27)씨가 한 코스를 추락 없이 끝내자 친구들이 더 기뻐했다. 부러움도 섞여 있는 듯했다. 센터에서 매긴 해당 코스의 등급은 총 8단계 중 2단계에 불과했다. 조 감독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쉬운 문제라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낸 대단한 성취”라며 “아주 잠깐이지만 완능 홀드를 ‘터치’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든다. 재미는 덤”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러잖아도 파리올림픽이

후 궁금해하던 차에 친구가 ‘전도’해줘서 처음 접했다. 계속 올 것 같다”며 땀을 닦았다. “자!” 다른 곳에서 완능한 김씨의 ‘전도사’ 이윤희(29)씨는 “봤지! 봤지!”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씨도 1년 전 다른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단다.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를 재빠르게 영입하는 ‘다단계 방식’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하루 전국 600여 곳의 운동장에서 수십, 수백 건씩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클라이밍 세 분야 중 하나인 ‘볼더링’을 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갈수록 점수를 많이 얻는 분야다. 서채현 선수의 주종목인 ‘리드’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다. ‘스피드’는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

‘후~ 후~’ 지난달 7일, 기자는 ‘리드’로 치르는 남원 대회에 참가해 12m 높이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선수와 응원단 4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현준이와 같은 그룹에 속했다. 남원 대회는 나이·성별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출전한다. 5.9, 5.10, 5.11, 5.12 네 분야인데 5(경사가 심한 상태를 뜻함)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어렵다. 5.10에 출전했다. 예선 두 문제를 톱

(완등) 찍었다. 감이 좋았다.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지연됐다. 점심시간에 맞춰 한식 뷔페가 나왔다. 몸이 가벼워야 했기에 침만 흘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회를 앞두고 2kg를 뺐다. 지난해에는 즉석 자장면을 뽑아줬단다. 대회 방식도, 음식도 특이한 대회다. 드디어 결선. 다른 선수들 동작을 보면 ‘커닝’이기에 30분 가까이 격리됐다.

다시 후~. 손에 묻은 초크(땀을 제거하는 가루)를 입으로 불고 올랐다. 루트 세터가 만든 문제를 힘겹게 풀며 산 넘고 물 건너 24번째 홀드(손으로 잡거나 발로 딛는 부분). 갑자기 손이 빠졌다. 획! 안전벨트에 묵었던 로프가 길게 늘어지면서 추락했다. 7m, 아찔했다. 추락하면서도 떨어진 지점을 쳐다봤다. “괜찮아요?”라고 대회 관계자가 말했다. “다시”는 없다. 끝이다. 7위로 마감했다. 차라리 한식 뷔페를 먹을걸.

조 감독은 “요즘 추세는 리드도 볼더링 같은 동작이 나오는데, 집중력과 이해력·판단력 등 머리를 쓰면서 과감하게 몸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그래서 서채현 같은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벽을 바라보며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루트 파인딩)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서채현 선수가 경기에 앞서

망원경까지 동원해 루트를 관찰하고 마임하듯 손짓과 발짓으로 동작을 시연해 보는 건 다 이유가 있었다. 함께 참가한 5060들도 “덕분에 다이어트로 5kg 빼고, 건강검진 전날만 안 마시던 술도 열흘이나 끊으니 살 것 같다. 장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달 2-6일 강남서 월드컵, 김자인 출전 스포츠클라이밍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강레아 사진작가는 “김자인 선수 등반 모습을 찍은 적이 있는데, 초집중 상태에서는 오히려 눈의 초점이 사라지더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스포츠클라이밍 연구도 쏟아지고 있다. 생명과학·생물리학 분야의 데이트베이스가 구축된 ‘팜메드’에는 최근 한 해 평균 50편 안팎의 관련 논문이 등록되고 있다. 근력 향상뿐 아니라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등 정신적 측면 연구도 많다. 심지어 클라이밍에 빠진 2030 서울대 대학생들은 ‘실내 클라이밍 짐홀드의 관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오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기도 했다.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 원정을 가는 이들도 있다. 오사카에서 만났던 송민근(33)씨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짝퉁(어렵다는 뜻)하지만 문제를 푸는 재미도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미가 붙으면서 실력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에 집중하다 보면 부상 위험도 따른다”며 “차근차근, 다치지 않고 오래 하는 게 정답”이라고 조언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인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파리올림픽 이후 처음 열린 프라하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볼더링 부문에서 이도현(22) 선수가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인 서울 강남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김자인·천종원·이도현·서채현 선수 등이 총출동했다. 내년 9월에 세계선수권대회도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다. 내년 전국 대회에선 키가 부쩍 커진 현준이를 만나게 될 것 같다. 현준이 같은 친구들이 바로 미래의 천종원·이도현 아닐까.

김홍준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원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문의처 Ms. Han (703) 939-5223 (가장 빠른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매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희소식!

버지니아 한인 최초!

OTC Network 승인 SAS 정식 공인 딜러



발은 제 2의 심장!

당뇨신발의 효능

- 혈액순환
- 발 변형 방지
- 혈압 감소
- 무릎 관절염 예방
- 피로도 감소
- 넘어짐 방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 브랜드 narzio 당뇨신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오랜 전통의 신고 싶은 신발! 최상품 가죽, 수작업으로 만든 SAS 당뇨신발

역시 한국인이 만들면 원가 다릅니다!

이쁜 기능성 신발! 한국인이 만든 패션 당뇨신발/양말 투박한 당뇨신발은 가라~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 혈액순환에 좋은 당뇨 양말도 있습니다.



FDA 승인 당뇨신발 딜러



OTC card로 구매 가능



혜택을 받으세요!

연금 보험

버림받은 목돈 노후보다는 사랑받는 평생연금노후 한국인이 잘못 알고있는 노후 준비- 아까워서 못쓰는 가난한 부자? 여유롭게 평생 쓰는 연금부자가 됩시다!

암 보험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18세~ 89세)

1.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2. 혹시 느낌이 불안하신 분 (병원 가기전에 가입)
3. 심적 안정을 원하시는 분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도 5만불 지급 (피부암 제외) 신체 검사 필요없이 바로 가입



그것이 알고 싶다

무료

메디케어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혜택입니다. 가입기간을 놓치시면 패널티를 내십니다. ”

2025년 **확!** 바뀐 플랜! **베네핏 제공!**

1. 현재 있으신 보험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
2. 직장보험에서 퇴직하시는 분
3.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메디케어 플랜 이전
4. 각종 플랜 A, B, C, D 와 서플리먼트
5. 메디케어 있으신 분, 각종 베네핏 제공
6. 노인아파트 입주 상담도 해 드립니다.
7. 의심스러운 병원비 찾아드립니다.

국가대표 메디케어 마이크 리 703.679.2010

출장방문 가능 7535 Little River Tnpk. #204, Annandale, VA 22003 • 13850 Lee Hwy., Centreville, VA 20120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안전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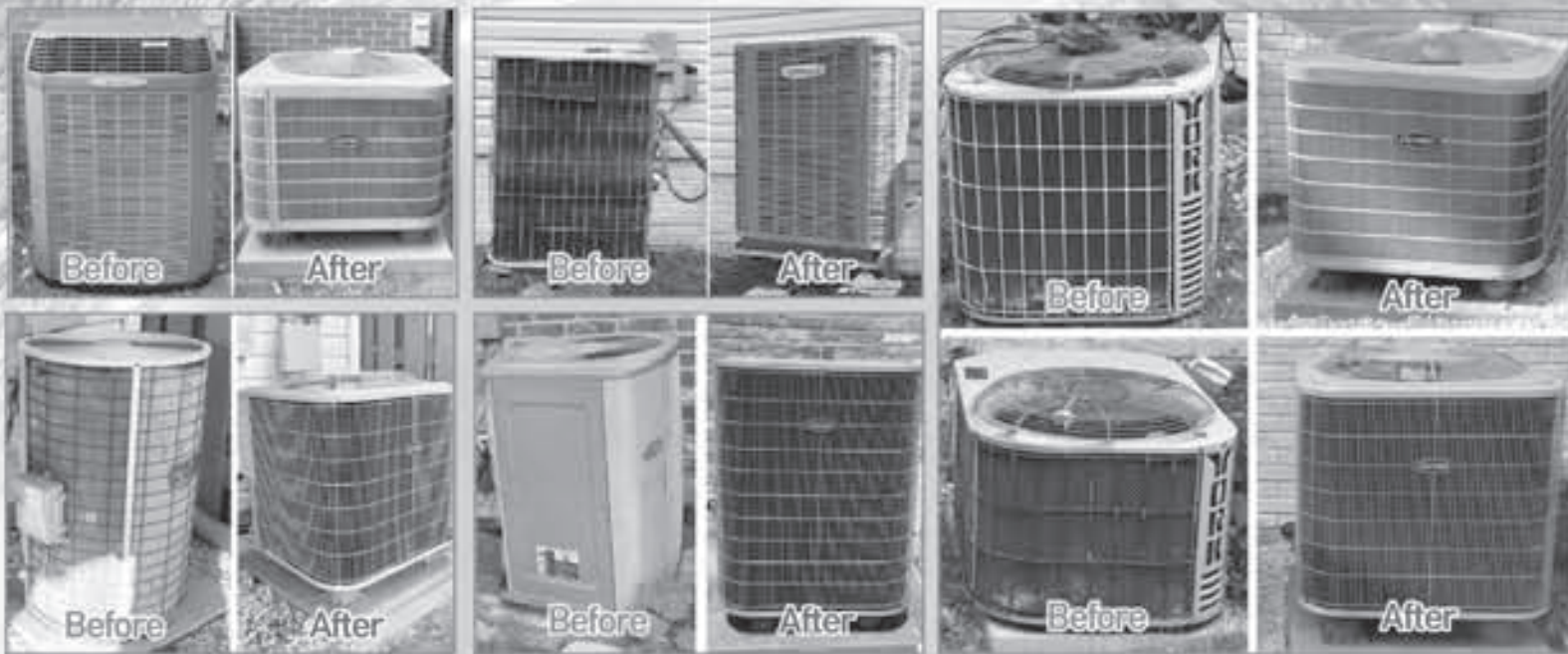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서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 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크/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 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 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 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 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홀 2층방/유모/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 시티 타운홀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 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룸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개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 / 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워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 회사 세일즈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 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 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h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원 0명 -ERP/Excel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자 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 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분류: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험자 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 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 계약 및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Before/After images showing mulching results)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days off; 며칠 쉬다

(Roger is talking to Jim at work ...)

(로저가 짐과 직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Roger: I'm going to take two days off in March.
로저: 3월에 이틀 쉬까 봐.
Jim: Oh? What days?
짐: 그래? 무슨 날에?
Roger: Friday, March 21st and Monday, March 24th.
로저: 3월 21일 금요일하고 3월 24일 월요일.
Jim: What are you going to do?
짐: 뭐 할 건데?
Roger: My friend Daniel is coming into town from

Seattle to visit.
로저: 친구 다니엘이 날 보러 시애틀에서 여기로 와.
Jim: You've known each other a long time right?
짐: 서로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지 그렇지?
Roger: That's right. We've been friends for thirty years. We go way back.
로저: 맞아. 30년 친구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
Jim: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he's here?
짐: 친구가 여기로 오면 뭐 할 거야?
Roger: Like me he loves jazz so I'm going to take

him to some jazz clubs.
로저: 다니엘도 나처럼 재즈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재즈 클럽을 좀 데리고 가려고.
Jim: I hear there are some good jazz clubs in Seattle too.
짐: 시애틀에도 괜찮은 재즈 클럽이 좀 있다더라.

"My sister is coming into town next week." (다음주에 누이가 방문해.)
▶ (we) go way back: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다.
"Jim and I go way back. We first met each other in 1980."
(짐과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1980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 I hear~: ~를 알고 있다.
"I hear Lee is moving back to Korea next week."
(리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다.)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into town: 일이나 여행으로 어떤 도시를 방문하다.

날말퀴즈

| | | | | | | | |
|----|----|----|----|----|----|----|----|
| 1 | 2 | 3 | | 4 | | 5 | 6 |
| | 7 | | | 8 | | 9 | |
| 10 | | 11 | 12 | | | | |
| 13 | 14 | | | 15 | | 16 | |
| | 17 | | | 18 | | | |
| 19 | | | | | | 20 | 21 |
| | | | 22 | | 23 | | |
| 24 | 25 | | 26 | | 27 | 28 | |
| 29 | | | | | 30 | | |

가로열쇠

(1)정미 많고 감성이 풍부한. 오빠는 늘 ~하게 나를 챙겨 주었다. 다□□□ (4)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 (7)어떤 일이나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 이루는 줄거리.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핏줄의 계통 (8)검은 머리에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 (9)모습이나 태도 따위가 갑작스럽게 달라지거나 바뀜 (11)소리가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거나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벽 (13)먹은 음식물을 토해 냄 (16)중생대에 번성하였던 거대한 파충류 (17)경기 따위에서 이기고 있던 형세가 뒤바뀌어서 지게 됨 (18)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 (19)지나날 뱀을 잡아 팔던 사람 (20)잠을 자지 못함 (22)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는 수레. 동남아 여행 중 자전거 ~를 탄 적이 있다 (24)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미. 그는 ~이 좋아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다 (26)콘크리트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 (27)밥을 푸는 도구 (29)옥 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요□ (30)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됨. 회□□□

세로열쇠

(2)몸의 각 부분에서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 (3)지붕 바로 아래에 이중처럼 높게 만든 방 (4)활이나 반달처럼 굽은 모양. 축하나 환영의 뜻으로 활처럼 굽은 모양으로 만든 광고물 (5)앞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6)물고기가 변해 용이 됨. 아주 곤궁하던 사람이 부귀하게 됨. □□성□ (8)날이 밝을 무렵. ~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 (10)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 따라 강남 간다 (12)음탕하고 덕의에 벗어나는 상스러운 이야기. □담□□ (14)흙을 이기거나 바르는 등의 흙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일꾼 (15)푸르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 청□□□ (16)실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장이나 선전 (19)정한 땅에 각자의 말을 통킨 대로 금을 그어서 땅을 빼앗아 가는 놀이. □재□□ (21)수염을 깎음 (22)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 (23)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 (25)매우 귀찮게 줄라 담 (26)담배를 몹시 많이 피우는 사람 (28)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을 해서 ~이 없으면 ~이 없겠다

스도쿠

| | | | | | | | | |
|---|---|---|---|---|---|---|---|---|
| | | 9 | | | | | 8 | |
| | 1 | | 4 | 7 | | 3 | | 9 |
| 6 | | | | 2 | | | | |
| | | 4 | | | 6 | | | 7 |
| 7 | | 8 | | | 1 | 9 | 3 | |
| 2 | | | | 3 | | | | 6 |
| | | | | | 7 | 4 | | 2 |
| | | 3 | | | 9 | 5 | | |
| | | | 5 | | 2 | 6 | | |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3 | 1 | 9 | 2 | 8 | 5 | 7 | 4 | 6 |
| 8 | 7 | 5 | 6 | 4 | 9 | 3 | 2 | 1 |
| 2 | 6 | 4 | 7 | 1 | 3 | 9 | 8 | 5 |
| 9 | 5 | 8 | 4 | 3 | 7 | 1 | 6 | 2 |
| 4 | 3 | 6 | 1 | 5 | 2 | 8 | 9 | 7 |
| 7 | 2 | 1 | 9 | 6 | 8 | 4 | 5 | 3 |
| 1 | 4 | 7 | 8 | 2 | 6 | 5 | 3 | 9 |
| 6 | 9 | 3 | 5 | 7 | 4 | 2 | 1 | 8 |
| 5 | 8 | 2 | 3 | 6 | 1 | 9 | 7 | 4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month year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병원 리셉션 및 간호사
폴/파트타임
풀러턴 지역
한국면허 인정
(714)389-7000
stemsmedical@gmail.com
스시웨프-폴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덴탈랩(밸리)
월매상\$17,000, 기\$5만5천
주인은퇴 (213)269-7802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저
(213)268-9946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구인

매매

기타 지역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매매

구인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술,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대 \$1,400 450g
특대 \$1,800 450g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